

TOC

특

TREND ON CULTURE
JTBC MAGAZINE 2015 FIRST

EXCLUSIVE

'송곳' 최규석 작가
'무리수'를 '묘수'로 바꾸다

INSIDER

프로듀서
아주 특별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두 명의 PD를 만났다

JTBC <뉴스룸> 보도국의
하루 보고서

이것이 '팩트'다

내 친구집 비공개컷 공개
내 친구의 집에 놀러왔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군단 & MC 인터뷰

셰프를 부탁해



WHAT YOU
EAT IS
WHO YOU
ARE Sam
Kim

글로벌

친구 집 습격

프로젝트



유세윤 | 알베르토 | 장위안 | 다니엘 | 마크 | 제임스 | 로빈

TOC

JTBC MAGAZINE / 2015 FIRST



06 COVER STORY

셰프를 부탁해 지금 가장 뜨거운 예능인 <냉장고를 부탁해>, 전국민적인 관심으로 더 뜨거운 9인의 셰프를 만났다.

18 STORY

우리는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운동아>의 주인공 주진모와 김사랑을 만났다.

26 INSIDER

프로듀서 아주 특별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두명의 PD를 만났다.

28 EXCLUSIVE

'무리수를 '요수'로 바꾸다 웹툰 <송곳>이 드라마로 옮겨진다. 최규석 작가와 김석운 PD가 의기투합한 이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 공개된다.



30 REVIEW

스토리퀵, JTBC 예능에 빠지다 JTBC의 공식 서포터즈인 스토리퀵이 요즘 가장 흥미로운 예능에 관해 꼼꼼히 리뷰했다.

32 FOCUS 1

장진, 유연한 모험가 미디어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도전과 지금 미디어 시장에 대해 말한다.

34 FOCUS 2

잭슨 흥, 세상에 없던 피조물 미술계가 가장 사랑하는 젊은 아티스트가 된 잭슨 흥과 나눈 말들.

36 COLUMN

리듬 체조는 외계인들의 스포츠다! 평소 리듬 체조를 즐겨 보던 소설가 김중혁이 말하는 리듬 체조를 둘러싼 사건과 진실.

38 ON AIR

이것이 '팩트'다 JTBC <뉴스룸>보도국의 김필규 기자의 치열한 하루 보고서.

42 ESSAY

JTBC 예능을 빛낸 남자들 JTBC의 예능을 통해 스타로 등극하며 매력을 발산하는 4명의 남자.

44 LIVE

김제동의 톡투유 그 현장에는 뜨거운 공감이 있었다. 저마다 외로운 시대, 김제동과 시대의 멘토들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 그 현장의 생생한 기록.

46 BEHIND THE SCENE

내 친구의 집에 놀러왔어요! 중국, 벨기에, 네팔, 이태리로 떠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의 좌충우돌 여행기

50 CULTURE

이번 주말 뭐하세요?

52 CHECK LIST

당신은 이미 보고 있다

53 WHAT'S UP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54 LAST SCENE

나의 가방을 소개합니다



JTBC TOC

발행일 2015년 6월 20일

발행인 홍정도

발행처 JTBC 홍보마케팅팀

편집 프리엠컴퍼니

디자인 A36 design studio

사진 리미티드엑스

이 책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JTBC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J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중앙일보



중앙SUNDAY

J KOREA JOONGANG DAILY
In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일간스포츠

The Korea Daily



예능을 큐하다 **QTV**

Forbes
Korea

Newsweek

이코노미스트

월간중앙

여성중앙

lemontree

COSMOPOLITAN

HEREN

(é)ci

SURE

InStyle

ELLE

magazineM

소년중앙
weekly

문예중앙

MEGABOX

Jo!ns



요리사, 냉장고 그리고 MC

셰프를 부탁해

채널을 불문하고 지금 가장 뜨거운 예능은 <냉장고를 부탁해>다. 예능인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9인의 셰프가 주방이 아닌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글 윤서연, 윤재웅



최현석

별명 허세프(허세 가득한 몸짓으로)
약력 엘본다테이블 총괄셰프



- 1 요즘 저요?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요즘만큼 바쁘고 열심히 산 적이 없어요. 프로그램과 업장을 병행하죠. 그런데 나만큼 인기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하하!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 2 저는 우승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늘 지루하지 않게,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요.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서 상의 5%이상의 퀄리티가 나온다면 사람의 취향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도전에서 다른 요리, 새로운 요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 3 있는 재료에 충실하려고 해요. 정준영 씨의 냉장고로 '감동의 더가니'를 요리할 때, 새우에 그레이비 소스를 뿌리고 싶었어요. 그레이비 소스가 없어서 토마토 소스, 도가니탕을 섞어서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었어요. 더치 커피로 탄맛을 더했죠. 그레이비 소스와 맛이 똑같았어요.
- 4 강예빈 씨의 냉장고는 편의점에서 산 식자재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달걀과 초콜릿으로 수플레를 만들었어요. 대결에서는 졌지만요.
- 5 양희은 선생님의 냉장고는 정말 풍성했죠. 소유진 씨, 선 씨의 냉장고도 요리하고 싶은 영감을 불러일으켰죠.
- 6 박찬호 선수와 류현진 선수, 유희관 선수, 박찬호 선수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맛있는 사람이예요. 스타이면서 인간적으로 존경이 가는 사람이죠. 어려운 야구 꿈나무를 위한 행사를 열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 7 이연복 셰프님은 날 가장 진지하게 만들었어요. 승패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필드에서 평가는 별개거든요. 앞으로도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훌륭하고 잘하는 셰프를 많이 만나고 싶어요.
- 8 정창욱 셰프와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목적지는 파리도 좋을 것 같네요.
- 9 미카엘 셰프의 '백투더치킨스튜'는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15분 만에 그런 깊은 맛이 나오다니 놀랐어요. 미카엘 셰프는 점점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해>의 셰프들은 다 요리의 성격이 달라요. 업장 성격도 다르고요.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 10 잘 튀긴 치킨. 그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 11 제 공구 보따리요. 칼 지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가방 대신 제 칼을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다녀요. 방랑 감각의 느낌이 좋아요.

“저는 우승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늘 지루하지 않게,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요.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서 상의 5%이상의 퀄리티가 나온다면 사람의 취향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도전에서 다른 요리, 새로운 요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최현석 셰프

이연복

별명 대가머리가 커서라는 설
약력 종식당 목란 오너 셰프

Question

- 1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의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무엇인가?
- 2 15분 경쟁에서 우승하기 위한 자신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 3 <냉장고를 부탁해>는 게스트의 냉장고 재료로 요리한다. 자신의 냉장고 속 재료가 절실했던 적은?
- 4 가장 곤란했던 냉장고는?
- 5 가장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냉장고는?
- 6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는 누구인가?
- 7 출연진 중 당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셰프는 누구인가?
- 8 셰프 중 한 명과 여행을 간다면 누구와 함께하겠나?
- 9 지금까지 가장 기억나는 음식은 무엇인가?
- 10 모두의 냉장고에 준비되었으면 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 11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도구는 무엇인가?

- 1 저는 항상 주방에 있으니까 달라진 걸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업장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약이 두 달 넘게 밀렸어요.
- 2 재료를 보고 메뉴를 두 개 정도 구상해요.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복잡한 것을 선택하면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단순한 것은 승부에 영향을 주죠. 항상 복잡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막상 시작하면 승부욕이 굉장해요.
- 3 찜뽕을 만들었을 때 배추가 절실했어요. 배추가 있으면 국물이 시원할 텐데. 딱 한두 가지 재료가 아쉬울 때가 더러 있었어요.
- 4 지누 씨의 냉장고. 김치로 중화풍을 내기가 힘들더군요. 김치의 색깔이 메뉴를 구상하는 데 방해가 되었어요.
- 5 양희은 선생님의 냉장고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 6 저는 신동엽 씨의 냉장고로 요리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 7 정창욱 셰프는 게스트의 취향을 잘 분석한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맛강패쥬'. 정창욱 셰프와 대결할 때에는 신경이 좀 쓰이죠.
- 8 고민되는데...홍석천 씨요. 사람이 재미있고, 자투리 재료로 음식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와이 해변가에 가도 좋겠네요.
- 9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제가 요리한 '연복쌈'이에요. 이 음식을 하면서 손도 배었는데 정말 15분 안에 완성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때도 좀 더 단순한 메뉴가 떠올랐죠. 할까 말까 속으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상대가 최현석 셰프여서 '에라, 해보자' 싶었죠. 정말 아찔한 대결이었어요.
- 10 소라, 오징어, 전복 같은 해산물과 돼지고기 한 덩어리요. 이 재료만 있으면 다른 부재료를 더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 11 물론 중국칼이죠. 중국칼과 육을 빠트릴 수는 없어요.





- 1 정말 바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손님이 늘었어요. 단골을 많이 잃었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예약을 하시고도 오지 않는 '노 쇼(No Show)'도 늘었어요. 혹시 예약하고 못 오시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기다리시는 다른 분이 오실 수 있도록요.
- 2 저는 게스트의 마음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읽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김나영 씨는 냉장고에 있는 옥수수를 처리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옥수수 수프 위에 옥수수 튀김을 섞처럼 올린 '섬섬옥수수'를 만들면서 옥수수를 많이 썼어요.
- 3 <냉장고를 부탁해>의 가장 큰 재미는, 뭐가 없더라도 있는 그 재료만으로 요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게 있었다면 제 칼이에요. 프로그램 녹화가 월요일이라서 가끔 칼을 잊을 때가 있어요.
- 4 강남 씨의 냉장고가 난감했죠. 강남아, 다음에는 꼭 냉장고 정리 좀 부탁한다.
- 5 선 씨의 냉장고는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잘 정리하는 건 요리사에게 중요하죠.
- 6 청와대의 냉장고와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이 궁금해요.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 재료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 7 최현석 셰프와 대결할 때에는 저도 긴장되긴 하더라고요. 키도 너무 크고...하하!
- 8 최현석 셰프와 일본에 한번 가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곳을 다니면서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9 미카엘의 '백투더치킨스튜'가 기억에 남아요. 생강을 넣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 수프도 맛있었죠. 맥다가 밥 한 공기를 달라고 했죠.
- 10 냄새탈취제. 여러분, 냉장고는 깨끗한 관리가 중요해요. 식자재만 말해야 해요? 그렇다면 두부요. 두부는 정말 훌륭한 재료죠.
- 11 조리용 젓가락을 많이 사용해요. 써보시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 1 '러블리로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닭살 돋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좋아해서 요리, 식자재, 사물에 러블리라고 붙이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 사람은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 2 저는 우승을 많이 못해봐서... 흑흑, 제 무기를 꼽자면 내추럴한 맛과 상황이나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게스트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요리를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제 방향대로 가게 되더군요. 그게 독이 될 때도 득이 될 때도 있어요.
- 3 가수 박준형 씨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제 토마토 소스가 절실했어요. 인스턴트 소스를 사용해 '파콘 투게더'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평이 안 좋았죠. 제 냉장고에는 언제나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썼으면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 4 강남 씨 냉장고가 가장 인상 깊었죠. 썩은 재료가 너무 많아서 손대기조차 겁났었어요. 반면 소유진 씨 냉장고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곤란했어요. 재료가 너무 많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더 힘들더라고요.
- 5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하하.
- 6 김연아 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평소 김연아 씨 팬이거든요. 물론 먹고 살지는 않을까 궁금해요.
- 7 어디로 뭘지 모르는 김풍 작가. 게스트의 성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자연식 요리를 만들어도 게스트가 인스턴트 요리를 좋아하면 게임 끝인 거죠. 그럴 때 사실 되게 억울해요.
- 8 오랜 시간 본 건 아니지만 오랜 친구같이 편한 미카엘. 미카엘과는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요. 어떨 때 보면 미카엘은 외국인 같지 않고 한국인 같아요.
- 9 미카엘 요리의 훈제 닭가슴살 요리 '가슴이 콩닥콩닥'을 꿈꿀 수 있을 거 같아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완성도 높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가장 미카엘스러운 요리를 완성했죠.
- 10 파르메산 치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 요리 하면 치즈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맛을 내기도 쉽고요. 한국인들은 모차렐라나 체다 치즈를 많이 쓰고 파르메산 치즈는 잘 쓰지 않더라고요.
- 11 치즈 그레이터. 제가 <SNL>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금반지를 치즈 그레이터에 갈아서 금가루를 만드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하실걸요.

“제 무기를 꼽자면 내추럴한 맛과, 상황이나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게스트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요리를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제 방향대로 가게 되더군요. 그게 독이 될 때도 득이 될 때도 있어요.” -샘킴 셰프

5

홍석천

별명 스포츠보이
약력 마이치즈, 마이젤시, 마이타이, 마이누들 오너



- 1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셰프의 주적', '셰프들의 질투의 대상'. 요즘은 과분한 승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홍석천입니다.
- 2 저는 무조건 출연자에게 맞춰요. 그게 제 무기예요. 저렴한 입맛에는 아주 저렴한 음식을 만들고, MSG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MSG를 마음껏 넣어주죠. 하하.
- 3 꽃게요. 식빵이 함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럼 꽃게와 식빵으로 게살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제 비장의 무기거든요. 저는 꽃게와 로브스터가 냉장고에 들어 있는 출연자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제나 나와 주시려나.
- 4 제가 요리한 냉장고는 아니지만 가희 씨의 냉장고는 좀 난감했어요. 케이윌의 냉장고도 그랬죠. 둘 다 안 걸려서 다행이에요. 제게 피해가는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 5 소유진의 냉장고 송로버섯까지 없는 게 없었죠.
- 6 김연아와 손연재. 둘의 냉장고를 나란히 놓고 요리하고 싶어요.
- 7 저는 이연복 선생님과는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연복 셰프님은 정말 고수예요. 또 정창욱 셰프도 날 긴장시키죠.
- 8 김풍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 가보면 좋겠네요. 저렴한 입맛이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자취 경력이 28년이에요. 처음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그래서 자취생 콘셉트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풍이 딱 그 콘셉트를 하면서 제가 애매해졌죠.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게 게스트 맞춤 전략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시청자가 따라 하기 쉬운 요리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셰프들과 경연하며 저도 점점 욕심이 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따라 하기 좋은 음식을 놓지 말아야겠어요.
- 9 제 요리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굴로장생'. 아시다시피 제대로 익히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 요리 중에서는 최현석 셰프의 튀김 요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치즈를 올린 예쁜 요리였죠. 요리를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만들었을까. 최현석 셰프는 요리에 참 재능이 있구나 새삼 생각했죠.
- 10 토마토와 감자. 할 수 있는 요리가 많고, 달걀이나 햄 등을 더해 '콜라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어떤 냉장고에도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 11 가장 좋아하는 요리 도구는 블렌더예요. 뭐든 갈아버릴 때 있으면 유용해요.

“제 자취 경력이 28년이에요. 처음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그래서 자취생 콘셉트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풍이 딱 그 콘셉트를 하면서 제가 애매해졌죠.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게 게스트 맞춤 전략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시청자가 따라 하기 쉬운 요리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셰프들과 경연하며 저도 점점 욕심이 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따라 하기 좋은 음식을 놓지 말아야겠어요.” -홍석천 셰프

6

미카엘

별명 미남셰프
약력 전 조선히otel 셰프, 전 불가리아 웨라톤 호텔 셰프, 젤렌 한남점 파트너, 젤렌 이태원점 셰프



- 1 외계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셰프와 게스트 중 저만 외국인이나가요.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아서 힘들긴 한데 재미있어요.
- 2 심플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 3 치즈와 요구르트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게스트 냉장고에는 보통 한식 재료가 가득하니깐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 4 첫 번째 게스트였던 장우만 씨 냉장고가 가장 난감했어요.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게 스팸 밖에 없어서 힘들었어요. 계란과 스팸으로 미트볼 요리를 만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네요.
- 5 서양 식자재가 많았던 소유진 씨 냉장고. 함께 출연한 가희 씨의 냉장고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멋진 크레페를 만들어 드렸죠.
- 6 트로트 가수 이박사를 초대하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이박사를 좋아한다고 하면 놀라는데 저는 그분 노래가 신나고 좋아요. 술을 마시면 항상 이박사 노래를 들죠.
- 7 나와 가장 비슷한 요리를 만드는 샘킨.
- 8 정창욱 셰프. 둘 다 여자 친구가 없어서 잘 통할 거 같아요. 일본도 좋고 멀지 않은 곳으로 여행 가면 좋겠네요.
- 9 홍석천 씨가 취두부를 이용해 만든 '취담가리'라는 요리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식힌 홍어 같은 냄새와 비슷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냄새는 너무 힘들어요.
- 10 냉장고에 채소나 고기 등 뭐든 신선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도 페타치즈가 있으면 더없이 좋을 거 같아요. 페타치즈는 불가리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치즈이기도 하고, 맛 또한 부드러워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 11 고기를 얇게 다질 때 쓰는 망치. 제 레스토랑에서는 고기 망치를 매니저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원일

별명 똥장님(똥장 이용한 음식 만들기로 유명해서)
곰세프(동글동글한 얼굴이 곰돌이 푸를 닮아)
악력 디어브레드 오너 셰프



7

- 1 저는 제가 '거품' 같아요. 너무 갑자기 얻은 인기에 어리둥절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 2 철저하게 게스트의 입맛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냉장고를 열었을 때 게스트가 갖고 있는 반찬이나 소스를 보면 게스트가 어떤 맛을 좋아하겠구나 하는 감이 와요.
- 3 케이윌 씨의 냉장고는 보이는 그대로 발효과학 김 선생님 냉장고였어요. 모든 것이 발효되었고, 썩었고, 상해 있었죠. 초계 국수를 만들었는데, 제 재료를 조금씩 더 추가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었을 거 같아요.
- 4 앞서 말한 케이윌 씨 냉장고가 제일 힘들었어요. 맛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 5 트러블 소스부터 씨된장, 씨간장까지 있던 소유진 씨 냉장고.

- 6 김제동 씨가 채식주의자라고 들었어요. 베이카리를 하기 전에 콩이랑 두부로 만드는 한식 요리를 했거든요. 채식 재료만으로도 부드럽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 7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고 대결을 했던 사람은 최현석 셰프님이었어요. 최현석 셰프님은 셰프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죠. 다시 대결해도 심장이 떨릴 것 같아요.
- 8 홍석천 씨는 다양한 재료와 맛, 요리법 등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맛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어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요리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홍석천 씨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 9 홍석천 씨의 양갈비 요리 '삼국화담'과 최현석 셰프님의 미역국 수프 '보글보글' 굴과 미역, 참기름을 넣어 만든 보통의 미역국에 베사멜 소스를 넣어 완전 다른 맛을 완성했죠.
- 10 제대로 보관된 고기.
- 11 저의 두 손이에요. 한식은 손맛을 빼놓을 수 없어요. 손의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을 즐기죠.

박준우

별명 털그레탈이 있는 '장그레'라는 의미
악력 2012년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준우승,
오븐티베르 셰프

8

- 1 로열젤리, 요새 로열젤리 힘으로 버텨요. 요리를 즐기지만, 셰프가 아닌 제가 15분 안에 요리를 완성하며 대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적, 체력적 부담이 없진 않거든요. 로열젤리 없이는 힘에 부치네요.
- 2 식자재의 유래나 문화적 쓰임새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 예측할 수 없는 게스트의 냉장고 속 재료를 조합하는 일이 수월해요.
- 3 저를 까칠하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의외로 현실에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대결을 할 때는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죠.
- 4 보통 요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소스 네 가지 구성을 맞추려고 해요. 김나영 씨 냉장고에는 쌀, 파스타, 감자, 떡 같은 탄수화물이 없어서 곤란했어요. 그래서 두부와 당근, 버섯을 사용해 '파리 송로' 요리를 만들었죠.
- 5 김민준 씨 냉장고에는 코코넛 밀크, 송로버섯 꿀, 민트 젤리 등 서양 식자재가 많아 가장 탐났어요.

- 6 정형돈 씨의 냉장고가 궁금해요. 항상 김풍 씨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냉장고를 한번 보고 싶어요.
- 7 김풍과 홍석천, 다른 셰프에게 지는 건 관철이에요.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하지만 셰프가 아닌 이 두 명은 꼭 이기고 싶죠.
- 8 남자랑 여행이요? 차라리 혼자 가겠어요.
- 9 미카엘은 별거 아닌 재료로 꽤 괜찮은 유럽식 요리를 완성해요. 그중에서 닭고기 수프 '백투더치킨수프'가 제일 맛있었어요. 유럽에서 자라신인지 제 입맛에 잘 맞아요.
- 10 뭘 만들어도 음식을 맛있게 완성해주는 버터와 생크림. 양식에 익숙한 사람은 버터와 생크림부터 찾을 거예요.
- 11 저는 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스페츨러와 스크래퍼를 애용해요. 칼을 잘 사용하지 않아 칼에 베이면 큰일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죠.



김풍

별명 유니셰프(김풍 작가를 지원사격하는 셰프군단을 비유)
악력 웹툰 <내일은 럭키 곰스타>, 웹툰 <찌질의 역사>
연재 중

9

- 1 MSG는 대부분의 요리에 들어가는데 없으면 서운하죠. 여러 가지 맛을 어우러지게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 같아요.
- 2 옆에서 요리하고 있는 셰프를 살짝 당황시키면서 요리하는 것이 제 무기라면 무기죠. 프로레슬러의 반칙왕 같은 캐릭터라고 보면 돼요. 프로레슬링에서 독특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당황시키거나 주목시키는 행동을 '기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믹으로 함께 대결하는 셰프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 3 평소 요리를 할 때 고급 재료를 쓰는 편이 아니라 관참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요리를 해요.
- 4 양희은 씨 냉장고에는 고급 재료도 많고, 자연 친화적인 식자재가 많아서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인스턴트 제품도 별로 없어 게스트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죠.
- 5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많았던 강여원 씨 냉장고. 함께 출연한 강균성 씨를 위해 고급 재료인 쇠고기를 써서 '힘을 내요 슈퍼나베'를 했는데, 제 캐릭터상 강여원 씨 냉장고가 더 탐났어요.
- 6 Barack 오바마 대통령, 기왕 부를 거면 대통령을 불러야 방송 시청률도 솟구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의원,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모시고 싶네요.
- 7 최현석, 이연복 셰프님이 제일 긴장이 많이 되고, 샘김이 제일 긴장이 안 돼요. 하하, 최근 이연복 셰프님과 대결을 붙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샘김과는 말도 안 되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샘김과 붙으면 제가 이긴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대결에 임해요. 멘탈링의 승리죠!
- 8 샘김은 좀 진중해요. 저는 되게 가벼운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9 최현석 셰프가 만든 치즈볼 '치투치투뽕뽕'. 모차렐라 치즈가 아닌 크림 치즈를 튀겨서 치즈볼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색달랐어요. 아이디어도 좋았고, 화려한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었죠.
- 10 버터와 토마토. 대부분의 요리에 버터를 써요. 식용유를 두르는 일이 있더라도 버터를 약간 섞는데 그러면 풍미가 더 좋아지죠. 저는 토마토를 김치찌개에 넣어 먹기도 하는데 감칠맛을 내는 일등공신이에요.
- 11 중화 요리할 때 쓰는 워, 스테인리스 팬은 불의 강약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잘 코팅된 워이 좋더라고요.



“옆에서 요리하고 있는 셰프를 살짝 당황시키면서 요리하는 것이 제 무기라면 무기죠. 프로레슬러의 반칙왕 같은 캐릭터라고 보면 돼요. 프로레슬링에서 독특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당황시키거나 주목시키는 행동을 ‘기믹’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믹으로 함께 대결하는 셰프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김풍 셰프

10 김성주

약력 국민 MC를 넘보는 남자.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5분 전 맛보기
기미상궁 역을 맡고 있다.



두 MC

<냉장고를 부탁해>의 진행을 맡은 두 MC가 말한다.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이 프로그램의 처음 콘셉트는 15분 안에 시청자들이 본인의 냉장고 속 재료로 요리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최현석 셰프와 이연복 셰프의 대결 에피소드의 경우 약간 과열되면서 고수들의 요리 대결이 되어버렸다. 이때 진지하게 대결에 임하던 두 셰프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딱 떠오르는 메뉴가 있다면?

샘킴 셰프가 만든 '심쿰오믈렛'이라는 요리. 유달리게 내가 직접 해본 요리다. 내가 자주 하는 계란말이와 비슷한 요리라 집에서 시도해봤다. 또 하나는 '레디캡'이라는 홍석천 셰프가 만든 디저트 요리. 여성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가 아니었나 싶다.

MC로서의 역할을 요리나 재료에 비유하자면?

MC는 냉장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데 만약 MC가 요리를 지켜보는 걸로 끝나면 그냥 <오늘의 요리> 같은 요리프로그램이 되는 거다. MC는 이 프로그램의 신선도와 감칠맛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결혼기념일, 아내와 함께 한 셰프의 업장에 방문한다면 어느 셰프의 식당에 가겠는가?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아내와 함께라면 최현석 셰프의 '엘븐더테이블'을 가겠다. 최현석 셰프의 스테이크가 정말 끝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파스타를 먹고 싶다면 샘킴 셰프의 '보나세라'를, 맛깔스러운 음식을 원한다면 정창욱 셰프를 찾아가겠다.

꼭 만나고 싶은 게스트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외국 정상들을 모시고 싶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이다. 혹은 내한 스타들도 좋다.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셰프들이 15분 동안 만들어내는 음식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11 정형돈

약력 개그맨과 MC를 넘나드는 남자.
호들갑과 온갖 외국어를 활용한 리액션을
담당한다.

진행자로서 최고의 에피소드와 메뉴를 뽑는다면? 그 이유는?

어렵다. 대신 최악의 에피소드가 있다. 홍석천 씨의 굴로장생 생굴비가 나왔다. 내가 비린내에 약하다. 오븐의 전기가 약해서 굴비가 안 익었던 에피소드. 최고는 매주 나온다고 생각한다.

나의 역할을 요리나 재료에 비유하자면?

냉장고의 손잡이라고 생각한다. 손잡이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 셰프도 있고, 재료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의 문을 여는 역할이라고 하고 싶다.

꼭 만나고 싶은 게스트가 있다면

꼭이란 건 있을 수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사랑해주는 분들을 모시고 싶다. 프로그램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 말고 정말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와 먹는 즐거움을 배로 느끼고 간다.

<냉장고를 부탁해> 이후 달라진 일상이 있다면?

요리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줄 몰랐다. 늘 시켜 먹고, 사 먹고,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매력과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는 주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왕이면 맛있는 것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요리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줄 예전에는 몰랐다. 늘 시켜 먹고, 사 먹고,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를 진행하면서 요리에 대한 매력과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는 주의였는데, 이제 이왕이면 맛있는 것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MC 정형돈



〈사랑하는 은동아〉의 주인공 주진모, 김사랑

우리는 사랑입니까?

일생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잊히지

않는다. 〈사랑하는 은동아〉는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 그때 만난 강력한 사랑을 다시 불러온다. 1995년, 2005년 그리고 2015년. 그들의 이야기. PHOTOGRAPHER KIM DO WON

김사랑

《사랑하는 은동아》의 대본을 읽은 곳은 집이었다.
상대 배우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나는 **잘 어울린다. 역할에...**

첫 촬영을 위해 나는 **다이어트**를 했다.
누군가를 20년 동안 사랑한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촬영 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요거트**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는 **침밀밀**이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내 연인을 고를 수 있다면

노트북의 노아로 하겠다.

나는 헤어진 남녀가 다시 만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헤어졌느냐 중요, 드라마 상황이면 가능**)

내가 내 역할에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기억상실**이다.

(**실제로 잘 까먹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은 **When I first kissed you**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서전의 제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은동아로 하겠다.

(**애니하면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영화 《침밀밀》 주인공들의 영화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해피엔딩!**

내 성격은 그 《침밀밀》 주인공 중

(**장만옥, 여명**)과 더 닮았다.

현실적인 면과 의외로 정에 많이 끌려서

영화 중반부에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같이 배를 타고 여명을 부두에 두고 떠났던 것(?)





헤어 장규(S-Hue/주진모),
 임희성(김사랑)
 메이크업 영옥(S-Hue/주진모),
 성희(김사랑)



주진모

〈사랑하는 은동아〉의 대본을 읽은 곳은 **집**이었다.
 (새벽 멜로 영화를 보던 중 대본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상대 배우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나는 **더 아날로그적으로**
 가야겠다 생각했다.(김사랑씨는 도시적이기 때문)
 가장 내 마음에 들어온 대사는 “**그 매장 사**”였다.

첫 촬영을 위해 나는 **나를 버렸다**.

(**기존의 연기형식을 바꿨다**)

누군가를 20년 동안 사랑한다는 것은 **꿈**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촬영 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떡볶이**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는 **노트북, 이터널 선사인**이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내 연인을 고를 수 있다면 **노팅힐의**

줄리아 로버츠로 하겠다.

나는 헤어진 남자가 다시 만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을 보고

내가 내 역할에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추억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은 **취중진담(전람회)**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서전의 제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선택으로 하겠다. (극중 은호말고 주진모로서 자서전을 쓴다면)

영화 〈첨밀밀〉 주인공들의 영화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갈등없이 잘 살길 바란다**

내 성격은 그 〈첨밀밀〉 주인공 중 (장만옥, 여명)과 더 닮았다.

(**장만옥이 현실적인 캐릭터고 여명이 좀 더 순진한 캐릭터라 보면**
 난 여명에 좀 더 가깝다)

또 다른 현수, 은동

1995년의 어린 현수 역
주니어(GOT7)

첫 촬영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당구장에 있는 현수에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수의 아역을 맡았는데 성인이 된 모습(주진모)이 마음에 드나요? 철없던 현수가 멋진 성인이 된 게 믿기지 않지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꼭 현수가 멋진 은호가 된 것처럼 저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현수라는 인물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10대 현수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순수하다는 점입니다. 철이 없을지라도 은동이에 대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을 하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드라마는 1995년, 2005년, 2015년 세 시점을 다룹니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이상하게 10년 후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네요. 20년 후에는 은호처럼 멋지게 나이 들어 연기하며 노래하며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믿음이 아닐까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믿음. 정말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거든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은? 역사 속 과거의 인물이라든, 현존하는 인물이라든 상관없이 실존 인물을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실존 인물이나까 잘 표현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을 테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그렇지 못할까 봐 그 인물에 대한 조금의 죄송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은동아〉는 해피엔딩인가요? 어떤 시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이 될 수도 새드엔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극의 흐름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극 중의 인물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해피엔딩일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2005년의 어린 은동 역
윤소희

첫 촬영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첫 촬영은 은동이랑 현수가 비 오는 날 10년 만에 우연처럼 만나서 레스토랑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벌써 되게 오래전 일 같네요 **은동의 아역을 맡았는데 성인이 된 모습(김사랑)이 마음에 드나요?** 그럼요! 김사랑 선배님 정말 예쁘세요. 기력지도 정말. 제가 여자가 되었어요!

은동이라는 인물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 역할이지만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아요. 은동이 덕분에 마음이 같이 맑아지는 기분이예요.

드라마는 1995년, 2005년, 2015년 세 시점을 다룹니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10년 후에는 서른세 살이니까, 아마 아직 열심히 사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연기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는 그때쯤엔 저한테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첫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순수한 마음과 희생이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한다면 예쁘게 오래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 희생에는 양보와 배려도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이나까 사랑하는 거죠.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은? 악역도 해보고 싶고 약간은 백치미가 있는 캐릭터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때그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뭐든 다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은동아〉는 해피엔딩인가요? 저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의 설렘과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은동아〉의 문을 연 또 다른 현수, 은동이 있다. 현수 역의 주니어, 그리고 은동 역의 윤소희는 풋풋하고 어린 첫사랑의 맨 얼굴을 닮았다. 1995년의

현수와 2005년의 은동을 소환하다.





한국형 연애의 발견, <마녀사냥>

정효민 PD

<마녀사냥>, 처음에 놀랐던 기억이 선명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솔직하고 야릇한 방송은 없었다. 나도 모르게 껄껄 웃으며 동감하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깃거리가 떨어질 때, <마녀사냥>은 꺼져가는 모임도 되살려주곤 했다. 그라나이트라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씬남씬녀를 지름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마녀사냥>을 진두지휘하는 정효민 PD를 만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예전에는 아슬아슬한 29금의 수위를 넘나들었다면, 요즘은 딱 19금처럼 느껴진다. 객관적으로는 이야기의 수위나 표현의 한계는 초반보다 지금이 더 세다.

7월 말이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지 벌써 2년이다. 장수 프로그램의 조짐이 보인다. 꾸준한 인기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사연이고, 두 번째는 MC 4명의 시너지 덕분인 것 같다. 진짜로 친한 네 명의 남자 MC들끼리 장난치고 농담하는 것이 <마녀사냥>의 또 다른 재미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개편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다.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상황이 나도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

최대한 익명성이 보장돼야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2년 가까이 실제 출연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진행해 왔지만 변화를 꾀하고 싶었다. 사연 속 주인공이 스튜디오에 등장하니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시청자들이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같다. 제가공을 해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문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주변에서 공격받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게 어렵다.

지금 PD로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익숙함과 지루함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고민이다.

시청자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적이 있다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놀라웠다. 정말 뜨거웠다. '쌈' 같은 미묘한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라나이트라고 묻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게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은? 애매한 기준이긴 하나 말을 잘하고 재밌는 건 기본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워지지 않을 게스트(웃음) 그 사람과 연애 이야기도 하고 사적



한국에서 성은 결혼한 사람들만의 전유물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는 미혼자들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돼가는 것 같아서 좋다.

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불쾌감이 남지 않는 분위일까. 참 애매하다. 하하.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는? 초반부터 윤여정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 해왔다. 개인 사정으로 무산되었지만 다음에 꼭 나와주시기로 했다.

요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수집해서 약간의 장식을 붙여 보여주는 것. 공감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이 요즘 예능 피다가 하는 일이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뭐? 전셋값. 연애를 사치로 여기는 2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PD로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퇴근할 때.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밤에 퇴근할 때다. 방송을 만들어 파일을 넘겨놓으면 늦은 퇴근을 할 때 방송이 나간다. 퇴근 중에 트위터와 같은 SNS에 올라온 반응을 보면서 아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느낄 때가 가장 좋다.

<마녀사냥>의 가장 큰 보람은? 20대나 30대가 연애나 성에 대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한국에서 성은 결혼한 사람들의 전유물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미혼자들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돼가는 것 같아서 좋다. <마녀사냥> 얘기를 나누면서 작업 걸기가 쉬워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릴 때 재밌더라.

JTBC만의 제작 문화가 있다면? <마녀사냥>은 JTBC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전문 케이블처럼 마이너한 성향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메이저이고, 지상파보다는 좀 더 새롭고,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JTBC의 포지셔닝이다.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척 괴롭긴 한데, 그런 문화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마녀사냥>이고, <비정상회담>이고, <셀전>이다.

최초의 기획은 뭐였나? 예능에서 섹스를 다룬 적이 없는 것 같다. 몰래 봐야 할 것만 같고, 저속하다고 표현되거나 기혼자들의 성을 다룬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 중간 지점에 20~30대 미혼의 성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었다. 그 부분을 파고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물론, 남자 시청자도 많은 게 특징이다.** 보통 연애 프로그램은 여자에게 인기가 있고 남자들은 큰 관심이 없다. 남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유인책을 많이 넣어 남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마녀사냥>인 거다.

프로듀서

예능 속 '프로듀서'인 진짜 PD들이 궁금해졌다. 세상에 없던 아주 특별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주역인 두 명의 PD를 만났다.
글 윤재웅

▽ <마녀사냥>은 JTBC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케이블처럼 마이너한 성향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메이저이고, 지상파보다는 좀 더 새롭고,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JTBC의 포지셔닝이다.

최초의 기획은 뭐였나. <비정상회담>에서 출발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통해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다면 또 다른 파급력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멤버 모두가 자신에 대해 할 이야기가 풍부하다는 점도 기획에 한몫했다.

기획 회의는 어떤 방식, 내용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여행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 이 프로그램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하려고 노력한다.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촬영을 하는데,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촬영 시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4~5일 동안 5회 분을 완성한다. 그래서 촬영 전에 사전 인터뷰를 자세하게 하는 편이다. 주인공 멤버의 자라온 환경, 어린 시절의 추억, 교육 방식,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아침을 먹는지, 빵에 뭘 발라 먹는지 등 정말 세세하게 파고든다. 그러다 보면 동거 문화라든지, 남다른 부모의 교육 방식 등 시청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정확한 장르는 뭐? 다큐와 예능은 같은 뿌리라고 생각해 '예능 다큐'로 접근했다. 굳이 말하자면 문화의 차이를 담은 예능 다큐라고 생각한다.

출연진들에게 대본이 주어지는가? 기본적인 여행 흐름에 대한 일정은 있지만 정해진 대본은 없다. 목적지를 찾아 여행을 하는 건 대본 없이 자유롭게 하는 편이다.



네팔 편부터 재미없기로 유명한 마이크 등 장했는데, 재미가 더해진 느낌이다. 고스펙의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기존 멤버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케미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제작진이 하나부터 열까지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어 울리지 않을 것 같은 멤버들끼리 매치도 해 보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지는 어디인가? 네팔이 가장 강렬하다. 촬영을 통해 수잔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수잔의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환대를 받고 왔는데, 최근 대지진 상황은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촬영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멤버는 누구인가? 수잔은 네팔 편을 통해 재조명된 것 같다. 생각보다 더 착실하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년이다. 학교 후배 같은 느낌인데 내가 만나본 멤버들 중에 가장 눈치가 빠르며, 같은 출연자 형들에게도 제작진 누나들한테도 진심으로 잘한다. 내 눈이 번개고 있는 건지 카메라 마사지 효과 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더 잘생겨지고 있다.

요즘 시청자들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리얼한 것을 원한다. 억지스럽게 상황을 만들고 꾸며내는 것, 그리고 제작진이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편집에도 반감을 보이는 것 같다.

▽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선 나는 이 일이 재밌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촬영을 마치면 또 다른 나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멤버들을 알아가고, 현지에서 만나는 그들의 친구와 가족을 통해 현재 멤버의 모습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다. 이 부분이 나에게 큰 원동력이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연출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는? 촬영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무뎠다. 타지에 사는 아들을 궁금해하는 부모님에게 아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신다. 더불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촬영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올해는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짜릿한 순간은? PD들은 리액션이 있어야 힘이 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 하나하나가 응원이 된다. 종종 인터넷 반응을 찾아보는데, 제작진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청자가 좋은 평을 남겨줄 때마다 제작진들끼리 카톡 같은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며 소소하게 기쁨을 나눈다.

2월 첫 방송 후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솔직히 계속 상승세는 아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주는 시청자와, 우리의 이야기가 쌓여간다는 느낌은 있는데 더 도약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항상 고민한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 역사와 고군분투 중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는 프랑스와 비슷하다. 뭔가 반복

되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려면 인물, 가족, 나라가 달라야 하는데 촬영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이야기가 줄어든다. 그런 부분에서 신의 나라

다음은 어디인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네팔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웠다. 다른 나라도 새롭게 풀어나가고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일환으로 여자 멤버를 출연시킬 계획이 있나? 이젠 정말 새로운 주제다. <비정상회담>에서도 여자는 왜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댄스 그룹도 혼성, 여자, 남자 그룹 모두 케미가 다르지 않다. 여자 출연진을 막은 적은 없고, 항상 열려 있다.

요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연스럽게 리얼한 것을 원한다. 요즘 시청자들은 억지스럽게 상황을 만들고 꾸며내는 것, 그리고 제작진이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편집에도 반감을 보이는 것 같다.

JTBC만의 제작 문화가 있다면? 다른 방송국에 비해 젊은 분위기다. 콘텐츠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 PD를 충분히 배려해주고, 대신 좋은 결과를 바라는 분위기다. 출연자들도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의논을 하고, 나도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다음은 어디인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방현영 PD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이거 진짜 리얼이다.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비정상회담>의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의 집에 방문하는 예능이 과연 재밌을까 반신반의하며 채널을 고정했다. 생김새와 국적도 모두 다른 청년들이 해외에서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며 여행하는 모습이 꽤나 신선하다. 억지로 웃기지 않았는데 재밌고, 마음 한구석까지 푸근해진다. 다음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송곳> 최규석 작가 '무리수'를 '묘수'로 바꾸다

웹툰 <송곳>이 드라마로 옮겨진다. 이 흥분되는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이들 역시 화려하다. 원작자 최규석, JTBC 김석운 PD의 만남은 그 자체로 기대를 모은다. 드라마는 올 하반기 공개된다.

글 정달해(대중문화칼럼니스트)



<송곳>은 <공룡 돌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습지생태보고서>, <대한민국 원주민>, <100도씨>, <울기엔 좀 애매한>, <지금은 없는 이야기> 등으로 한국 만화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해온 최규석 작가의 신작 장편 만화이다. 외국계 대형 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에 대한 대항을 좇는 이 작품은 현실에 굴복하지 못하는 주인공 이수인과 냉철한 조직가 구구신이 대형 마트 푸르미를 배경으로 등장해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대중성을 우선으로 꼽는 만화에 빠딱한 시선을 담아내고, 그러면서도 대중성까지 확보한다는 건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무리수'를 '묘수'로 둔갑시키며 호평을 끌어내고 있는 이가 있다. 웹툰 <송곳>의 작가 최규석(38)이다. 젊은 층에 어필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는 네이버에 노동운동을 소재로 삼은 흑백톤의 웹툰을 연재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끌어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노동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킨 만화로 대중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뿐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캐릭터와 대사로 폭넓은 연령대에 두루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웹툰의 영상화가 붓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송곳> 역시 드라마화가 결정됐다. <올드미스 다이어리> 등 시트콤에 이어 <조선 명탐정> 시리즈 등 영화까지 훌륭하게 연출해 능력을 인정받은 JTBC 김석운 PD가 연출자로 나섰다. 올 하반기 전파를 타게 될 드라마 <송곳>의 원작자 최규석 작가와 티 타임을 가지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송곳>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 또는 기대가 있었나?

그보다 '희망'하고 있었다는 말이 더 맞겠다(웃음) 나름대로는 이 작품을 시작할 때 '당당하게 사회적 발언을 하면서 대중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해보자. 노동운동을 다룬 만화를 두고 대중성을 점치는 경우는 드물 거다. 작품이 탄탄하고 완성도 있게 나올 경우 의도와 주제 의식 등에 높은 점수를 주긴 하겠지만. 그리고 흥행에 실패해도 '원래 흥행을 기대한 건 아니었잖아'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거다. 이 행보는 너무 뻔하지 않나. 기왕 큰맘 먹고 어려운 소재를 택했다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았다. 또,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라는 소재는 드라마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온갖 갈등과 희로애락이 이 안에서 드러난다. 이런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저 '의미'를 인정받는 정도에 만족한다는 게 아쉬워 좀 더 이야기보자라는 욕심을 가지게 됐다.

웹툰은 처음인 데다 어려운 소재를 택했다. 부담감이 컸을 것 같다. 맞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더라. 소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의미와 대중성 중 어느 한쪽을 잃어서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 첫 장편이라는 사실 등 중압감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많았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실패한 작품으로 낙인찍히면 어떻게 연재를 이어가야 하나 싶기도 했다. 연재 초반에 인기 순위가 떨어져 심장이 철렁하기도 했다. 공황장애를 앓는 웹툰 작가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가만히 보면 데뷔 당시부터 사회를 보는 사선이 남달랐다. '공룡 돌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는 인기 캐릭터 돌리의 성장 후 처참한 현실을 그렸다.** 그 작품 본 후 충격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죄송하다(웃음). 일단, 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주제 의식이나 사회를 보는 일관된 관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솔직히 단편 작업을 하던 초창기에는 학생다운 도전 의식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에 치중했다. 돌리를 그렇게 묘사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기공룡 돌리라는 귀여운 캐릭터를 확연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관점을 공격해본 거다. 사회적인 사선이 작품 속에 가미되기 시작한 건 시간이 좀 흐른 뒤다.

웹툰치고는 드물게 흑백을 택했다. 작품의 주제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건가? 최근 10년 동안 컬러가 대세로 떠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만화는 흑백 기반에서 발전했다. 웹툰 독자들에게는 컬러가 익숙하지만 흑백톤에 크게 거부감을 느낄 것 같진 않았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작품의 내용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또 어차피 소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인기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 뻔하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이 작품을 드라마화하는 김석운 PD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솔직히 잘 알진 못했다. 처음 김석운 PD와 연락이 닿았을 때는 이미 영화사와 판권계약이 돼 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을까'라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 이분이 영화사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자신이 계약관계를 정리해보겠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 당황했는데, 어쨌든 결국엔 김석운 PD가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연출력뿐 아니라 추진력도 대단한 분이더라.

드라마에서 꼭 살려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웹툰에서 일일이 살려내지 못한 캐릭터들과 에피소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게을러서 주변 인물들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한 것 같다. 다행히 드라마 기본에는 구구신의 상담소 이야기나 마트 안에 있는 아줌마들과 총각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더라. 웹툰이 진행형이라 드라마의 결말 부분은 함께 상의하며 만들어보고 있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과 <송곳>을 비교하는 이들이 많다.

열심히 물어가려고 한다. 이미 <미생>은 거대한 작품이 됐다. 괜히 <미생>을 이기려고 나섰다간 <송곳>만 찌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회사 분위기가 좋을 땐 <미생>을, 상황이 악화되면 <송곳>을 봐달라. <미생>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줘도 나는 괜찮다. 하하.

웹툰 <송곳>의 연재는 언제 재개할 건가?

이미 재개해야 하는데 단행본 작업을 하느라 조금 늦어졌다. 이제 단행본 3권을 내놨으니 연재를 다시 시작해야지. 일단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송곳>의 투쟁 이야기는 내년 봄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다. 애초 이 내용을 세 편의 이야기로 구성해보려 생각했다. <송곳>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예습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후의 계획을 실현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일단, <송곳>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니 이런 시도가 성공을 거둬야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원소스멀티유스 또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등으로 설명되는 콘텐츠의 산업화에 관한 이야기들, 그 속에 이 작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기분 좋다. 그리고 잘될 것 같다. 잘되고 나면, 준비하고 있었던 또 다른 '송곳'을 끄집어낼 거다.



드라마는 웹툰에서 일일이 살려내지 못한 캐릭터들과 에피소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게을러서 주변 인물들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한 것 같다.



시청자 리뷰 스토리퀸, JTBC 예능에 빠지다

스토리퀸 3기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은 매주 JTBC의 드라마와 예능을 모니터링하고 리뷰를 쓰며, 제작발표회에도 참여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리뷰를 쓰지 않을 때보다 더 꼼꼼히 몰입해서 프로그램을 지켜보게 되고, 더 나아가 최근 예능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가장 흥미로운 예능에 대하여, 글 박은서

만약 우리가 학교로 돌아간다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창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학교와 관련한 공통적인 감성들이 있다. 선생님과 친구들, 교과서와 필기구들, 책상과 결상, 칠판과 분필, 급식이나 도시락,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우리는 대부분 “공부만 하면 되는 학창 시절, 그때가 좋았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라며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 마음 그대로 지금 당장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이 이 상상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JTBC 화요일 밤 11시 방송)

학창 시절이 그리운 연예인 어른들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17세 열혈 고등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수업을 듣고, 급식을 먹고, 쉬는 시간에 놀고, 가족사에서 자며 친구가 되어간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순간 연예인이라는 신분은 없어지고 오로지 학생역할만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설정은 타임 슬립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을 실현해 시청자로 하여금 판타지적 감성도 가지게 한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는 저마다 다른 나이, 다른 성격의 복학생들이 출연한다. 현재 한민고에 전학 온 학생들을 소개하자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터줏대감이자 장난꾸러기인 아이돌 MIB의 강남과 영동했다가 똑똑했다가 어디로 튀지 모르는 신인 아이돌 유니크의 성주, 연예계 대표 CEO이자 포용력이 강해 보이는 핫한 언니 흥진경과 특유의 카리스마와 박력으로 학생들을 진두지휘하는 김수로, 매점을 사랑하는 베이글녀의 선두주자 시크릿의 전효성과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랩 지니어스 산이, 과학교에서 조기졸업을 하고 현재 카이스트 재학생인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하는 배우 윤소희, 그리고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공부의 신 서울대 출신의 꽃중년 아나운서 김범수가 출연한다. 출연진을 보면 나이가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제작진은 배경이 되는 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예고, 외고, 마이스터고 등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든 평온하고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학교생활의 더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지금 방송하고 있는 한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원 가족사 생활로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는 가족사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것이며, 가족사 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제작진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학교를 캐스팅한 이유는 아마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함일 것이다.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포괄적인 연령대인 복학생들은 같은 상황을 각자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바라본다. 이들은 자신의 학창 시절과 현재 학교의 모습을 비교하며, 여전히 같은 모습에는 반가워하고 달라진 것들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청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세대의 출연진에게 감정이입하며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10대들이 접하는 환경과 사회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생 시청자들은 복학생인 어른들에게 그들의 학창 시절에 대해 조금씩 엿들으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어른들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어떤 변화된 환경과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전해 듣게 된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소통에 대해 자주 듣고, 자주 이야기한다. 소통의 기본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감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세대 간의 공감이 그렇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사람의 생각도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각 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며 기성세대의 생각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요즘 것들이란...”이라며 혀를 찬다. JTBC의 예능 프로그램들 중 '세대 공감'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결혼해도 괜찮을까? <님과 함께 시즌 2>

학교 생활처럼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바로 결혼 생활을 다루는 <님과 함께 시즌 2>. 2011년 '3포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높은 생활비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말한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과거엔 필수라 여겼던 결혼이 지금은 선택이 되었고, 결혼 적령기 또한 절로 늦어져 '만혼'이 늘어 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해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만혼 남녀들을 위한 '결혼 미리보기' 방송이 등장했으니, <님과 함께 시즌 2>이다. (JTBC 목요일 밤 9시 40분 방송)

결혼 미리보기 방송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스쳐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4년째 방송되고 있는 MBC의 <우리 결혼했어요>이다. <님과 함께>를 본 후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니, <우리 결혼했어요>는 결혼 생활이라기보다 연애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았다. 단순히 <님과 함께> 출연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서라기보다 <님과 함께>가 <우리 결혼했어요>보다 만들어진 날씨가 덜 나고, 현실감 있게 결혼 생활을 보여주며, 출연자들의 감성선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님과 함께 시즌 2>의 출연자는 두 커플이다. 먼저 시즌 1에서 가장 사랑받은 안문숙, 김범수 커플이 시즌 2에도 출연한다. 이미 호흡을 맞춰본 적 있는 커플인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아서 그런지 신혼집에서도 어색함 없이 '콩나물공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다른 커플은 장서희, 윤건 커플이다. 레모네이드 같은 여자와 커피 같은 남자의 만남. 언뜻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둘 다 허당기가 있어서 묘하게 잘 어울린다. 솔직한 성격의 장서희와 차분한 성격의 윤건은 안김커플(안문숙, 김범수 커플)과는 다른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속 이들은 귀엽다. 어른들은 정숙하고 성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 두 커플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대하며,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한정 짓지 않고 개방적으로 행동한다. 이 점이 가장 의외였다.

많은 20대는 장년층 어른들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규정 지을 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남자는 부역일을 하면 안 된다.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을 흔히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님과 함께>를 보면서 그것 또한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장서희를 위해 윤건이 맛있는 식사를 만들고, 요리를 해준 안문숙을 위해 김범수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된다”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장서희와 윤건을 보며 어른들에 대한 선입견을 벗게 되었다. 반대로 노년층 시청자들은 <님과 함께>를 보며 변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만혼이 늘어나고 결혼이 선택이 된 이유도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 밖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규정 짓던 육아와 가사 노동을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 역할에 속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가정 안팎으로 남녀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님과 함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대 공감을 위한 장을 마련해준 예능 프로그램이다. 학교 생활, 결혼 생활 등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세대마다 다른 생활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세대 간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판타지로 자신의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돌아봄과 동시에 지금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는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학생들은 복학생인 어른들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사회에 대해 전해 듣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한다. <님과 함께 시즌 2>는 가상 결혼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각 세대의 결혼 생활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세대가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JTBC 스토리퀸 3기 박은서

알코올과 카페인에 약하지만 술자리와 카페를 좋아하는 인태까운(?) 몸을 가진 대한민국 20대이다. 음악, 드라마, 영화, 사진을 좋아하고 가끔 글씨도 쓰는 그녀는 문학과 노랫말을 공유하는 모임인 페이스북 페이지 '세상에 없는 계절에서 편집자 및 캘리그라퍼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토리퀸'은

JTBC의 공식 서포터즈로 '내 손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모토 아래 프로그램 리뷰 작성, 모니터링, 현장 체험을 하며, 각종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12월 17일 시작으로 현재 스토리퀸 3기가 2015년 4월부터 활발히 활동 중이다.



크리에이터를
말하다 **장진,**
유연한 모험가

추리 예능 <크라임씬>에서 매회 기사를 발췌한 영화 감독 장진.

실제 범죄 사건을 재구성해서 범인을 추리해가는 <크라임씬>에 출연 중이시죠. 과거 쇼 프로그램을 연출하거나 심사를 보는 식으로 방송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출연자로 예능에 등장하신 건 좀 의외였어요. 방송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다 윤현준 PD 때문입니다.(웃음) 저랑 동갑이니 경력이 꽤 있죠. 같은 나이에 같은 연출자 입장에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섭외 할 때는 나를 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은 원기가 있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윤 PD를 믿고 결정한 거죠.

감독님 외에도 박지윤, 홍진호, 장동민, 하니 등이 고정 출연하죠. 출연자들이 추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본이 과연 어느 선까지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짜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모든 불신과 의문은 지워도 됩니다. 일단 촬영장에 가면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출연자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녹화를 멈추면 작가가 한 명씩 붙어 개인 대기실로 이동하고요, 철저히 각자의 역할만 알고서 녹화에 임해요.

JTBC 예능 출연자이자 미디어 종사자로서, 요즘 JTBC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시사 보도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 점을 메인으로 우뚝 섰는데, 이전 예능이 아주 잘되고 있죠. 재밌고 괜찮은 JTBC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시사 보도의 강점이 좀 희석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송사와는 수준이 다른 시사 보도 채널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잘되는 예능을 저지할 수도 없는 일인데...(웃음) 각 분야가 고루 성장하면서 채널의 파워가 커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사와 예능은 성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한 채널 안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살리는 게 좋다고 봐요. 간단히 예를 들면 예능이 방송되는 특정한 시간대에만 ‘JTBC FUN’ 같은 로고와 함께 또 다른 예능 브랜드로서의 성격을 부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정답이 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로서 제 생각은 그래요.

뉴스는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

중독일 정도로 챙겨 봐요. JTBC에서는 손석희 사장님뿐 아니라 다른 스타 기자나 앵커가 등장해주면 좋겠어요. <뉴스룸>이 어느 뉴스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해줄 때, 그와 기조를 같이하는 다른 인물들이 <뉴스룸> 외의 시간대에도 원가를 보여줌으로써 JTBC만의 논조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거예요.

미디어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분답게 감독님만의 시각이 있으시군요. 1년 전 개봉한 영화 <하이힐> 이후로 준비 중인 작품은 없나요? 그 전에는故 김광석 탄생 5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디셈버 : 끝나지 않은 노래>를 연출하셨죠. 늘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잖아요.

며칠 전에는 UHD 단편 영화를 찍었고... 천운인지 신기가 내려서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초에 희곡 두 편을 썼어요. <웰컴 투 동막골> 이후 12년 만에 그러니 희곡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내년 초쯤에는 이 연극 두 편을 무대에 올

장진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영화인이다. 영화 감독이며 작가이고, 제작자이자 ‘장진 사단’이라 불리는 배우들을 발굴하는 우두머리다. 사회 풍자와 코미디를 넘나드는 TV 라이브 쇼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주 치렀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개폐막식이라는 거대하고 엄숙한 쇼에도 도전해봤다. 것처럼 이곳저곳에 출몰하는 영화 감독이 또 있을까? 많은 영화 감독과 작가들이 골방에 앉아 예술을 궁리할 때, 장진은 미디어의 장르에 상관없이 경계를 유연하게 누볐다. 15년 전 국내 첫 인터넷 영화를 선보인 그가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한다. 언제든 재밌는 일을 모으려는 이야기꾼의 유전자와 20년 이상 상업 시장에 몸담은 감각으로, 그의 도전과 지금 미디어 시장에 대해 말한다.



한마디로 모바일 상에서의 방송국과 비슷해요. 방송이 TV 전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면이 강해서 이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미디어의 현재 환경에 맞춰서 폰으로 어떤 시대를 이끌어준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미디어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그에게 JTBC와 현 미디어 시장, 그리고 그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글 권은경

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안 미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그와 관련한 재밌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대안 미디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한마디로 모바일상에서의 방송국과 비슷해요. 방송이 TV 전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면이 강해서 이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미디어의 현재 환경에 맞춰서 폰으로 어떤 시대를 이끌어준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일단 유튜브 정도가 떠오르네요. 갖가지 영상물이 모여 있는 아카이브잖아요. 그런데 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SNS를 하지만, 일부러 영상만을 보기 위해서 어딘가에 접속하는 건 귀찮은 일이기도 해요.

어딘가를 찾아가서 콘텐츠를 보기도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 자기 SNS로 콘텐츠를 퍼나르는 식이죠. 웃긴 것,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URL을 보내잖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어떤 영상물을 올리기도 하고요. 저는 2년 이상 온라인 전용 드라마 사이트나 개인 전용 영상 사이트 같은 콘셉트를 준비 중이었어요. 마침 기회가 와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로 아이디어를 펼쳐보고 있죠.

미디어 환경이 다채로워져도 정작 유저 입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 말고 모바일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다면요?

미국에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콘텐츠가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하죠. 디즈니가 그 회사를 1조원에 인수했습니다. 디즈니에서 제작하는 캐릭터나 여러 부가사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통로로만 써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장일 거예요. ‘모바일상의 방송국’ 역시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외에 SNS를 운영하는 개인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널리 퍼뜨릴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이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레시피 개발부터 요리 스튜디오 마련까지 멘토링 형식으로 함께 해볼 수 있고, 유명 셰프와 장을 보는 이벤트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1인 채널이 내용 면에서나 유통 면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모바일은 이를 더 수월하게 해주는 수단이고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을 보면, 왠지 2000년대 초반 상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게 생기면서 TV를 보는 것처럼 컴퓨터를 보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새 패러다임이 열리는 단계였어요. 지금은 ‘2020 원더키디’의 세상이네요.

저는 늘 새로운 미디어에 관심 가졌어요. 2000년에 국내 첫 인터넷 영화를 만들었죠. 그때 인터넷 영화 프로젝트로 제가 만든 <극단적 하루>, 류승완 감독의 <다찌마와 Lee>, 김지은 감독의 <커밍 아웃>이 상영됐어요. 그 이듬해에는 통시사와 모바일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영

화를 보냐,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냐고 했어요. 20분짜리 모바일 드라마를 만들면 버퍼링 때문에 2분 단위로 끊어서 10번을 재생해야 했던 시절이니까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그걸 누가 보냐, 누가 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신문이나 잡지 같은 종이 매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손 안에서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극장 문화가 퇴색되진 않겠죠. 미디어가 발전하고 과도기를 겪으면서, 기존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간혹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받곤 합니다.

모바일의 효용성이 그저 모바일을 통해 원가를 본다는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저의 최종 목적지는 아날로그입니다. 영화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볼까요? 당신이 극장에서 막을 내린 어떤 영화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계속 정보를 찾아봤다고 쳐요. 어느 날 당신에게 그 영화 소식을 담은 메일이나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지난주에 많이 검색했던 그 영화가 현재 어느 극장에서 특별 상영 중이네요.’ 그럼 당신은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IT를 기반으로 한 모든 플랫폼에서는 유저의 인터넷 패턴을 읽는 게 가능하죠. 어떤 루트로 들어와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어느 시간대에 주로 이용하는지 등을 데이터화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 모든 데이터가 향하는 지점이 결국 아날로그라고 생각해요.

하하, <1984>의 빅 브라더 같은데요?

그만큼 데이터의 힘이 강력한 것이고, 그 축적을 통해 아날로그로 귀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날로그로의 귀환을 꿈꾸다니, 미디어 시장의 미래를 공리하는 전략가의 모습에서 다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다운 목소리를 내주시는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카시오 전자시계가 나왔어요. 세상 시계는 모두 전자시계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가볍고, 계산기 역할도 하고, 엄청난 놀이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초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디지털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가능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일단 가보고 싶은 셈이에요. ‘이 정도 비전이라면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힘이 생기면 세상을 위해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우리가 사랑한 아티스트 잭슨홍, 세상에 없던 피조물

'잭슨홍'이라는 이름을 안다면, 당신은 주변에서 미술에 대해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통할 것이다.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그의 이름은, 그의 작품을 즐기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 산업 디자이너 홍승표에서 미술계에 가장 사랑하는 젊은 아티스트가 된 잭슨홍과 나는 말한다.

글 윤서연

잭슨홍 PROFILE

1971년생, 2002 미국 크렘브룩 예술아카데미, 3d 디자인학과 석사, 1999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석사, 1995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사

주요개인전

2015 <Cherry Blossom>, 시청각, 서울, 2012 <13 Balls>, 아트클럽 1563, 서울, 2010 <엑토플라즈마>, 갤러리 2, 서울, 2008 <Petri Dish>, 김진혜갤러리, 서울, 2007 <Unsettling Chairs 2>, Akademie Schloss Sletstede, 슈투트가르트

어릴 적 당신은 어떤 학생이었다. 미술 시간을 각별히 좋아했나?

미술 시간을 그리 즐기지는 않았다.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하지만 만화는 즐겨 보고, 그렸고, 무엇인가 만드는 것도 좋아했다. 생긴 것은 평범한 모범생인데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지금까지 당신을 설명하는 독특한 이력 중 하나는 국내 우수 기업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 기술연구소 디자인 팀에서 만 2년을 일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주임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어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을 자처하기에는 다소 망설여진다.

그래도 젊은 시절의 2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과정이 당신의 인생과 작품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자동차 디자이너의 업무는 사실상 '스타일링'에 가깝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각가처럼 훈련된 손기술과 비례감각, 조형적 특징을 타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데에 밑바탕이 된 것 같다.

순수작가로 전향하게 된 과정을 들려줄 수 있나?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일했다. 디자인 업무 이외에도 한국의 대기업 고객들과의 업무 연락 및 고객관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1년 만에 무능이 드러나 해고되었다. 또다시 조각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잔뜩머리가 났다. 디자이너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디자인과 미술 경계선 언저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주변의 권유로 씬스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거주작가로 들어갔다.

그 프로그램은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 아닌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미술가 행세를 길게 할 생각이 없었기에 작가 이름도 거의 반쯤 농담으로 '잭슨홍'이라고 지었다. 그러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을 거치게 되었고, 여러 기획전에 참여하며 더 발을 담그게 되었다. 초기에는 디자인과 미술 제도권 간의 경계의 확연함이 내 작업론리에 당위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계선이 와해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디자인, 이것은 미술' 식으로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디자이너'와 '작가'로서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삶은 그리 다르지 않다. 업무의 내용도 방식과 태도가 약간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집단의 형태가 되었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난다.

어떤 차이가 있나?

일반적으로 디자인계가 학계건 업계 종사자건 간에 모범생같이 얌전하고 지루하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반면에 미술계는 사기와 협잡, 그리고 사적인 욕망의 전사가 허용되는, 어쩌면 가장 인간 본성에 충실한 업계이기에, 간혹 허세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 정도의 민폐는 서로 너그럽게 이해해준다. 나는 디자인계 범생이 출신이라 이런 차이가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현재는 양쪽 모두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를 연작 형식으로 선보이는 여느 작가와 달리, 당신의 작품은 예측불허다. 늘 새롭고 다양하다. '다양성'이라는 주제일까?

내 작업은 결국 원가 만드는 일(Object Making)로 귀결된다. 만드는 방법과 태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변덕이 심해서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뭔가 다시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 전시 <체리 블라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체리 블라썸>은 관객들에게 약간의 배신감을 선사한다. 전혀 '분홍분홍'하지 않았다.

이전의 작업들은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의 내용과는 별개로, 항상 매끄럽고 잘 계획된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내 작업의 외피에 싫증이 났다. 그래서 이번 개인전은 의도적으로 '더럽게, 내용은 '진부해 보이는' 것을

재료로 삼았다. 깔끔 떠는 게 내 본래의 성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드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 결과가 어떨든 간에 면역억제제(Antihistamine)를 먹는 심정으로 전시를 준비했다.

<체리 블라썸>에 표현된 상황극 하나 하나는 굉장히 유쾌하다. 마치 출근하지 않은 날, 아침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전시공간인 시청각을 축소된 인형의 집이라고 설정하고 인형놀이 하듯이 인물상을 배치했다. 마치 하루에 두어 명 들을까 말까 하는 망한 도시의 망한 유원지에 있을 법한 민속 박물관의 폐허와 같은 디오라마(Diorama)로 만들면 어떨까 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만의 '아침드라마' 세계를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름다운 정경은 아니겠지만..

<체리 블라썸>의 인물 중 당신과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

액자 사진 안에 있는 조상님.

<체리 블라썸>의 초대장은 잭슨홍 기념 주화였다. 어떻게 사용하길 바라나?

아무래도 동전처럼 생겼으니 버리기는 아깝고, 애매하게 보관하는 기념품이 될 것이다. 어쩌다가 발견하면 전시 광경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기념주화 혹은 초청장은 그래픽디자인 듀오 김형재와 홍은주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들 마음대로 디자인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의 전시 초청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다.

한편으로 당신은 부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계적 패션 하우스인 에르메스의 디스플레이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개인 작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

애초에 나는 '평범함'이나 '부유함'과 같은 개별적인 사회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나의 작업 속에서 이런저런 사회의 서사들은 유의미한 형태를 빚어내기 위한 일종의 알라바이로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에르메스 쇼윈도 작업은 의뢰를 받아 일련의 목적을 수행하는 일기에 작가의 입장이나 가치관보다 '고객만족'이 우선시된다.

이 작업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예전에 아들리에 에르메스에서 두 번 전시할 기회가 있었기에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제의가 와서 시작하게 되었다. 고가 브랜드이건, 저가 브랜드이건 간에 기업이라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정략해온 철학과 기준이 있다.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이 작가 개인에게는 유무형의 자산이 된다. 고객이 만족할 때 보람을 느낀다.

여전히,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의 논점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찾자자 하는 것이 명확하면 주변의 사소한 모든 것이 영감의 원천이 된다. 반면, 이것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기한 볼거리나 읽을거리가 넘쳐난다 한들, 내 것이 될 수 없다.

설치 작품은 회화보다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번쯤 전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

죽기 전 마지막 전시를 미술계에 들어와 처음 전시했던 공간에서 하고 싶다. 하지만 그때쯤 되면 그 공간은 재개발되어 사라졌을 것 같다.

'서울'은 당신에게 어떤 도시인가?

아수라장. 시민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기에 예술의 파라다이스.

당신도 TV를 보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가?

BBC의 <Top Gear>를 즐겨 보았다. 현재는 이런저런 외국 요리 프로를 자주 보는데, 최근에는 <Kitchen Casino>를 즐겨 보았다. 그런데 슬프게도 시청률이 낮아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있나.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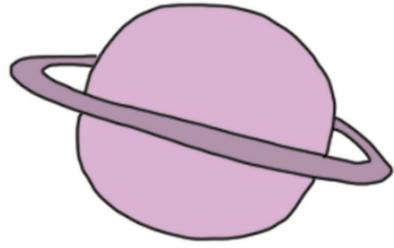
다음 전시는 오랫동안 화이트큐브에서 할 예정이다. 아직 무엇을 만들지 잘 모르겠다.

만약 길에서 우연히 당신과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모습(상황)일까?

시선은 지면을 향한 채, 어딘가 급히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죽기 전 마지막 전시를 미술계에 들어와 처음 전시했던 공간에서 하고 싶다. 하지만 그때쯤 되면 그 공간은 재개발되어 사라졌을 것 같다.



리듬체조를 둘러싼 사건과 진실

〈첫 번째 의혹〉 리듬체조는 외계인들의 스포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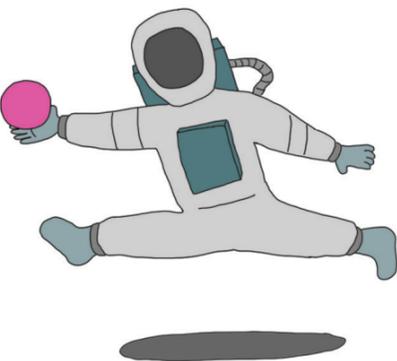
리듬체조는 놀라운 스포츠다. 인간의 몸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동작들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평소 리듬체조를 즐겨 보던 소설가 김중혁 씨는 리듬체조와 관련해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의혹은 리듬체조가 외계인들의 스포츠라는 것. 황당무계한 그의 의견을 들어보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 그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른다 -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복장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커다란 창문이 달려 있는 듯한 헬멧, 간호사들도 부러워할 것 같은 하얀색 우주복, 챔피언 파퀴아오에게 10분 동안 두들겨 맞아도 안전할 것 같은 각종 보호 장구들, 해저 수십 미터에 빠져도 끄떡없을 방수 방진 시스템 등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 사내아이들은 어릴 때면 누구나 그런 꿈을 꾸게 마련이다. 우주복의 무게가 거의 100킬로그램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멈췄지만, 그래도 우주에 나가면 무게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테니 지금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제 곧 우주 시대가 열릴 것이고, 누구나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리미리 열심히 벌여 놓아야 할 텐데..., 갈 길이 멀다.

우주 비행사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 ‘우주에 나가서 보면 푸른색 지구가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것이다. 좀 알미운 이야기이긴 하다. 이젠 마치 ‘OO집 피자 진짜 맛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피자는 역시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서 먹어야지’라고 면박을 주는 거랑 비슷하다. 누군들 나폴리에 가서 피자를 먹고 싶지 않겠냐고, 누군들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고 싶지 않겠냐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우주선에서 소변을 방출하면 작은 얼음덩어리로 변하며 태양 광선에 의해 빛이 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다. 이젠 그나마 상상의 여지가 있다. 해질녘의 맑은 날 갑자기 가랑비가 날릴 때, 혹은 잔디밭에 누워서 스프링클러가 물방울을 흠뻑릴 때, 지구의 풍경도 무척 아름답다. 흥! 게다가 여긴 오염도 아니고 맑은 물이라고! 샘나면 지는 거다.

우주의 풍경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아무래도 무중력 상태일 것이다. 사람들이 우주선 안을 뚫뚫히 떠나고, 모든 물건이 허공에서 맴도는 장면은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 볼펜을 돌리면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회전한다. 물을 쏟아도 쏟아지지 않는다. 신기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사실, 중력이 사라지면 무게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질량만 남을 뿐이지만) 몸무게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군침이 도는 장점이다. 다이어트여,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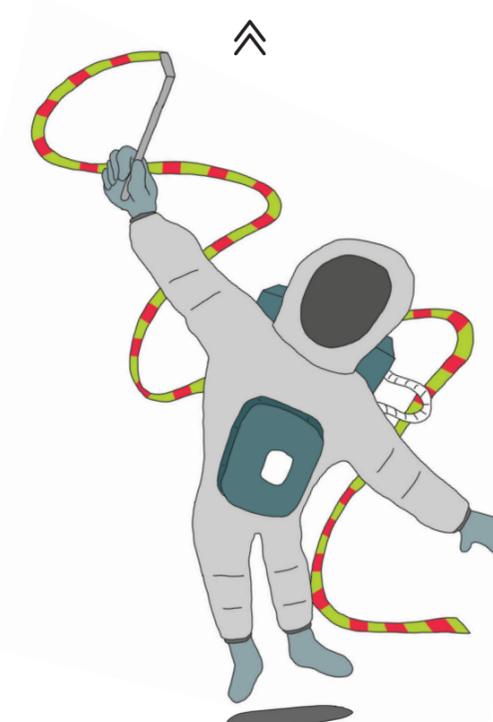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라는 옛말처럼 우주 비행사들에게 무중력 상태는 일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 우주 비행사 마이클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뚱뚱 떠다니기만 해도 무척 재미있지만, 그 뒤 한동안은 그게 귀찮아진다. 한 장소에 가만히 머물고 싶어진다.” 수많은 여자의 마음을 빼앗은 바람둥이가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다는 얘기와 비슷하게 들리는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긴 하다. 지금 각자의 방에서 상상해보라. 방 안의 모든 것이 전부 뚱뚱 떠다니는 거다. 연필이며, 컵이며, 휴대전화며, 마우스며, 키보드며, 비상금이며(아니, 비상금이 왜 밖에 나와 있지?), 탁상시계며, 스피커며 (이건 떠다니는 게 재미있을 거 같기도 한데) 모든 것이 뚱뚱 떠다니는 거다. 물건을 찾기도 힘들 것이고(그렇게 되면 무중력 공간 정리 전문가들이 생겨나겠지), 계속 무언가에 부딪힐 것이고(그렇게 되면 모든 물건을 벽에다 붙여둬야 할 테니 양면 테이프나 스티커 산업이 대박나겠지) 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모든 행성에서 중력의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 해도 인간들과는 무척 다르게 생겼을 것이다. 어떤 모양일까, 납작한 생선 같은 모양일까(이름하여 도다리족 외계인?), 질량이 거의 없는 구름 같은 모양일까, 어쩌면 아예 형체 같은 게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이라고 단서를 잠깐 붙이긴 했지만 나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쪽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지구 곳곳에서 외계인이 모습을 바꾼 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외계인을 찾아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리듬체조를 몹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외계인일 확률이 높다. 리듬체조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외계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라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멀터와 스킬리에게 정식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보길 요청하는 바다.

리듬체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력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이다.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은 중력의 존재가 무척 흥미로웠을 것이다. 잠깐 지구로 여행왔다 자신의 별로 돌아간 외계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 지구는 진짜 구경할 게 별로 없는데 중력은 그림판 말이야.’ 미국 드라마 〈빅뱅이론〉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인 하워드가 우주 정거장으로 파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지구로 귀환하는 시기가 늦어지자 하워드가 가장 그리워한 것은 친구도, 아내도 아닌 ‘중력’이었다. 아내와의 영상 통화에서 하워드는 이렇게 말한다. “중력이 너무 그리워, 여보. 뭘가 바닥에 떨어뜨려줄 수 있어?” 아내가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하워드는 오르가슴에 가까운 쾌감을 느낀다.

아마도 외계의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지구의 리듬체조’가 가장 인기 있는 쇼일 것이다(두 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패러글라이딩?). 공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리본이 선을 그리며 춤을 추고, 행성이 공전하듯 후프가 선수들의 몸을 휘감고, 한 치의 오차 없이 곤봉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치겠지. “아, 정말 정말 아름다워. 역시 지구는 중력이지! 중력이 몹시 그림군.” 외계인들은 지구로 파견 보낼 선수를 뽑는 리듬체조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중력이 작용하는 연습실을 만들어서 피나는 훈련을 한 다음 지구로 파견 오는 외계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리본의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본부에 신호를 보낼 것이고, 후프는 그들의 안테나일 가능성이 높다. 리듬체조 보는 것을 몹시 좋아하지만, 나는 외계인은 아니다. 외계인의 눈으로 리듬체조 보는 것을 좋아한다. 높이 솟았다가 떨어지는 곤봉을 보고 있으면, 온몸이 찌릿하다. 공이 선수들의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면 우주에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정말 아름답다.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는 지구 곳곳에서 외계인들이 모습을 바꾼 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외계인을 찾아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리듬체조를 몹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외계인일 확률이 높다.



김중혁 작가 PROFILE

경성북도 김천에서 태어났으며, 계명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웹 디자이너 일도 했고, 음식잡지, 여행잡지에서 3년여 기자 생활을 하다, 2000년 (문화과사회)에 중편소설 〈펭귄뉴스〉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씨네21)에 칼럼도 썼으며 '문장의 소리'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단편소설 〈연백자 D〉로 2008년 제2회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에도 2010년 제1회 젊은작가상 대상, 2011년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학부문)을 수상했다. 소설가 김연수, 시인 문태준과 막역한 고향 친구.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책방'에 부진행자로 고정 출연하여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팩트'로 사는 남자 이것이 '팩트'다

모든 언론의 중심에는 보도국이 있다. JTBC <뉴스룸> 보도국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맡고 있는 김필규 기자는 '팩트'에 죽고 사는 남자다. 그 남자의 치열한 하루 보고서. 글 김필규 기자

AM 7:00

아침에 일어나 큰애 웃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 데려다주었다. '팩트'의 첫 일과다. 와이프의 출근시간이 빨라지면서 내 몫이 되었다. 내 출근 준비도 하려면 정신없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 <뉴스룸> 개편 일이자 '팩트'의 첫 방송 날이던 지난해 9월 22일 태어난 둘째는 이제 8개월이 됐다. 개편 첫날이라 분만 현장에 못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기특하게 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다. 팩트'처'처럼 말이다. 아이들의 8월은 당일 발매다. 8분 정도 되는 구성물을 당일 발매하고 당일 취재해 당일 제작하려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없다. 이렇게 미리 아이템이 준비된 날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그래도 혹시 오늘 나온 핫 이슈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출근 후 조곤부터 챙긴다. 인터넷 포털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팩트'처'는 기존에 나온 소식 중 잘못된 팩트를 잡아내는 코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20대 취업전쟁 여성 완승?...통계의 착사)(2014년 9월 24일 방송)나 <한국, 일 할 하면서 돈은 더 받는다...진실은?>(2014년 11월 18일 방송) 같은 폭지도 이렇게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를 재검증해 아이템으로 잡은 경우였다.

팩트'처'는 기존에 나온 소식 중 잘못된 팩트를 잡아내는 코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AM 9:00

오전 9시에 시작하는 보도국 편집회의. 준비한 아이템을 이 회의에서 발제한다. 그렇게 해서 채택된 이날의 아이템은 <팬티 차림으로 안마 요구...대법 "무죄" 왜?>다. 사무실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은 속옷 차림으로 여직원과 내기 화투를 치던 어느 캐피탈 업체 사장이 다리까지 주물러달라고 요구하다 성추행으로 소송이 걸린 사건이었다. 자신의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더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전날 보도가 나가긴 했지만 왜 이렇게 상식과 어긋난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다. '팩트'처' 팀원들끼리의 첫 회의는 오전 11시다. 임경빈 작가, 박수주 작가, 이진우 피디, 그리고 인터넷 두 명(현재는 김정현, 설지연 학생)이 또 다른 '팩트'처'들이다. 여기에 그래픽디자인팀의 배장근 디자이너가 팩트'처'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컴퓨터그래픽(CG)을 전담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하는 코너이다 보니 그날 아이템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다음 아이템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체크하다 보니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이 만만치 않다. 작가들의 헌신적인 활약이 없이는 방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은 팩트체크입니다. 김필규 기자 준비해주세요.” 부조에서 진행 PD의 목소리가 들리면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손 앵커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당초 개편 때 팩트'처'에 배정된 시간은 5~6분이었지만 어느 순간 평균 8~9분으로 늘어버렸다.

PM 12:00

오전 회의에서는 취재할 포인트와 대략의 구성을 논의한다. 본격적인 취재는 점심 식사 이후부터다. 이날은 판결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특히 되도록 많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꼼꼼한 취재가 필수다. 판결문 원문을 확보해 몇 번씩 읽어보고 성폭력특례법과 형법상의 관련 조항도 찾아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았던 만큼 눈에 띄는 인터넷 댓글 반응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 반응도 직접 인터뷰해보기로 했다. 가끔은 직접 현장을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항상 제작 시간에 심각하게 쫓기게 된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대신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PM 4:00

취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기사의 틀을 잡는다. 그리고는 오후 4시쯤 한 차례 더 회의를 한다. 여기서 기사의 방향을 최종 조율하고 가장 중요한 그래픽 작업을 논의한다. 특히 각종 통계나 연구내용을 인용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과정에서 고민한다. 그러다 보니 한 회에 들어가는 CG가 보통 10장 이상이다.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이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본인의 창의성까지 더하는 피디와 그래픽디자이너 역시 팩트'처'의 핵심자원이다.

PM 6:00

키보드에서 불이 나도록 기사 작성을 마치고 나니 오후 6시 30분. 앵커의 방송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적어도 뉴스 한 시간 전에는 기사 내용을 간략히 본다(그러려고 노력한다). 기사를 한번 훑어본 손석희 앵커가 “오케이” 하면 기사 작성은 그것으로 끝이다. 방송 중에는 손 앵커가 무슨 돌발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읽는 손 앵커의 표정을 꼼꼼히 지켜본다. 관심 있게 봤거나 혹은 미소 짓거나 농담을 했던 대목을 표시해두고 예상질문을 훑어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측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PM 8:00

그사이 피디와 그래픽 디자이너는 방송에 필요한 영상을 손보고 CG를 만든다. 방송 전 한 번이라도 연습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뻔뻔한 제작 공정상 리허설은 사치다. 오후 8시쯤 되면 분장을 받으러 가고 작가들은 CG를 최종 점검한다. CG상의 오타, 오류는 치명적이다. '팩트'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장 방송에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송 중 CG 오타가 발견됐을 때 앵커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 망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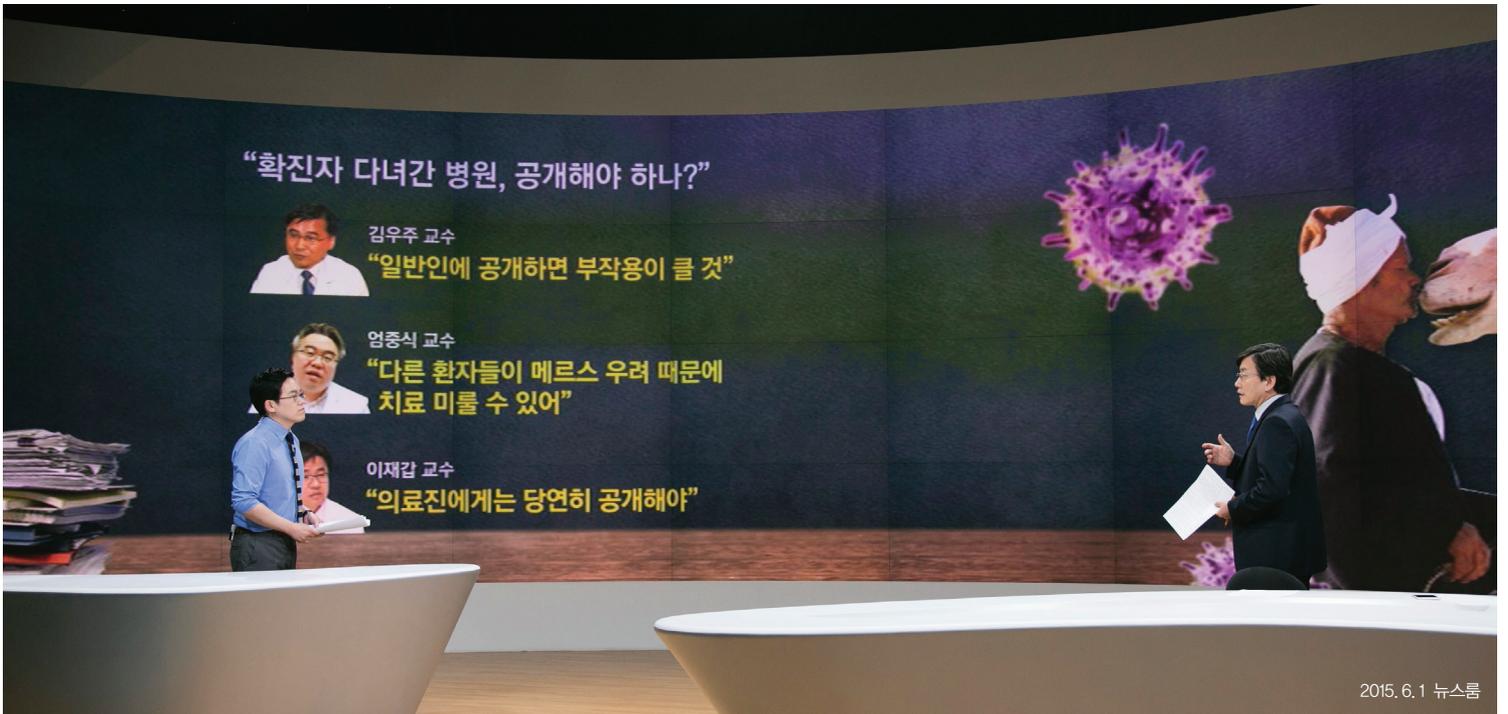
PM 9:00

팩트'처'는 뉴스룸 2부에 들어간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송 시간은 대개 밤 9시 10분쯤이다. 5분 전 스튜디오에 들어가 마이크를 차고 대기하고 있으면 그날 출연하는 초대손님을 직접 볼 기회가 생긴다. 이날의 초대손님은 허영만 화백이었다. 평소 존경하던 인물을 직접 만나 인사하고 가끔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는 것도 팩트'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다.

“다음은 팩트체크입니다. 김필규 기자 준비해주세요”

부조에서 진행 PD의 목소리가 들리면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손 앵커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당초 개편 때 팩트'처'에 배정된 시간은 5~6분이었지만 어느 순간 평균 8~9분으로 늘어버렸다. 취재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구성상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 기획할 때는 이 코너가 과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비판적이었다. '팩트'를 체크한다'는 콘셉트 자체가 논쟁적이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기획 단계에서 미국 언론사의 팩트'처' 코너를 참고했다. (템파베이 타임스)에서는 '폴리티팩트'라고 해서 정치인 등 유력인사의 발언을 검증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에도 팩트'처' 코너가 있다. 폴리티팩트에서는



결과에 따라 '진실, 반만 진실, 대체로 거짓, 새빨간 거짓'으로 구분돼 있는 게이지를 붙인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검증 결과에 따라 피노키오의 코 길이가 달라진다. 하지만 한국판 JTBC 팩트체크는 이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없었다. 방송이라는 매체 특성도 고려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매일 하는 코너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재를 정치인의 발언으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넓혔다. 구성도 앵커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했다. 처음에는 자료 조사를 맡길 인턴도 없었다. 회의실이 없어 라면 국물 떨어져 있는 휴게실에 옹기종기 모여 회의를 해야 했다(지금은 전담 인턴도 있고 심지어 사무실도 따로 받았다). 그리고 당초 비판적으로 봤던 것과 달리 어느새 팩트체크는 150회를 향해 가고 있다. 가끔 뇌의 용량에 비해 너무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바로 전주, 심지어 바로 전날 무슨 아이템을 했는지 선뜻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다. 벼락치기 공부의 폐해인지 과거에 취재한 정보가 새로 입력되는 정보에 밀려 그대로 빠져나가는 기분이다. 그래도 그동안 내보낸 방송 내용을 하나 하나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다. 한국저작권협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고 한 시민단체의 '이달의 좋은 방송기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인터넷과 SNS상에서 팩트체크를 응원해주는 목소리도 많이 생겼다. 힘이 나는 일이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 누군가의 잘못된 '팩트'를 바로잡는다는

누군가의 잘못된 '팩트'를 바로잡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앵커와 직접 이야기를 주고 받는 포맷 때문에 대사 한 줄,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인다. 게다가 방송 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앵커의 돌발 질문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요소이다. 실제 이날도 방송 말미에 손 앵커는 "어제 낸 속제는 왜 안 풀어주느냐"고 불쑥 물었다. 전날 네팔 지진에 대해 다루면서 '최근 10년간 대지진이 일어난 곳'을 표시한 세계지도도 보여줬는데, 그중 북한이 표시돼 있었다. "북한에서도 대지진이 있었느냐"는 손 앵커 질문에 명확히 답을 못했더니 "내일 다시 알아보라"고 덧붙였는데, 이튿날 방송에서 정말 물어본 것이다. 다행히 진상조사를 해냈던 터라 "북한의 점은 CG제작상의 실수였고 최근 10년간 한반도에서는(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없었다"는 답을 즉시 할 수 있었다. 예전에도 "김 기자는 외동아들이냐?" "빨리 가서 설거지해 야지." "오늘 아이템은 김 기자 개인 만원 아니냐?" 등 돌발 질문이 많았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부담감 때문에, 또 앵커와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는 포맷 때문에 대사 한 줄,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인다. 게다가 방송 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앵커의 돌발 질문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요소이다. 실제 이날도 방송 말미에 손 앵커는 "어제 낸 속제는 왜 안 풀어주느냐"고 불쑥 물었다. 전날 네팔 지진에 대해 다루면서 '최근 10년간 대지진이 일어난 곳'을 표시한 세계지도도 보여줬는데, 그중 북한이 표시돼 있었다. "북한에서도 대지진이 있었느냐"는 손 앵커 질문에 명확히 답을 못했더니 "내일 다시 알아보라"고 덧붙였는데, 이튿날 방송에서 정말 물어본 것이다. 다행히 진상조사를 해냈던 터라 "북한의 점은 CG제작상의 실수였고 최근 10년간 한반도에서는(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없었다"는 답을 즉시 할 수 있었다. 예전에도 "김 기자는 외동아들이냐?" "빨리 가서 설거지해 야지." "오늘 아이템은 김 기자 개인 만원 아니냐?" 등 돌발 질문이 많았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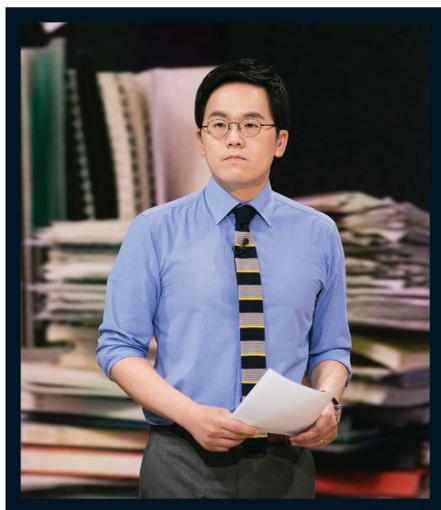
이 말이 앵커의 입에서 나오면 그제야 긴장을 풀 수 있다. 방송이 끝난 뒤 자리 정리를 하고 보도국을 나서면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또다시 잠깐의 찜도 없이 뻘뻘하게 돌아갈 다음 날 일정을 생각하면 속 악속을 잡기가 쉽지 않다. 술 마시자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줄 사람도 없지만 말이다.

PM 11:00

이렇게 맨 정신으로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정도. 아파트에 들어갈 때면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옆집 고등학생과 종종 마주친다. 하루 종일 뇌를 혹사하다 지쳐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집에 와 혼자 캔 맥주라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잡으면 지난해 언론재단 프로그램으로 방문했던 워싱턴DC의 뉴스 박물관 '뉴지엄(Newseum)'에서 사 온 자석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이 팩트를 알게 하라. 그러면 국가가 안전할 것이다 (Let the people know the facts, and the country will be safe)." - 에이브러햄 링컨

지금의 생활패턴은 수험생과 별 다를 바가 없지만, 시청자들에게 팩트를 알려주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다소 억지로라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힘을 내본다.



김필규 기자 PROFILE
JTBC 보도국 정치부 기자
중앙일보 39기 입사
서울대 인류학과,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

'JTBC 뉴스9'이란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한 걸음 먼저 시작하기 위해

뉴스는 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버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저녁 8시부터 100분동안
'JTBC 뉴스룸'이 문을 엽니다

'JTBC 뉴스룸'에서는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JTBC 뉴스룸



jtbc

스타 탄생 JTBC 예능을 빛낸 남자들

성시경, 하지웅, 강남, 그리고 남주혁까지. JTBC의 예능을 끌어가는 그들이 매력적인 이유. 글 권은경, 윤서연

<마녀사냥> <비정상회담> 성시경 대화하고 싶은 남자

데뷔 16년 차, 작곡가 김형석의 표현대로 '최고로 해독력 좋은 간과 영특한 두뇌, 발라드에 최적화된 목소리'를 갖춘 가수. 그가 매일 밤 '잘 자요'라고 달콤하게 인사하는 라디오 DJ로, 친근한 '성식이 형'으로, 마침내 <마녀사냥>의 '육정 발라드'로 등극하는 동안, 발라드라는 장르는 점점 시대와 멀어져 갔다. 희미해진 남자 발라드 가수의 굵직한 계보 그 마지막 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웃기고 말 잘하는 성시경이 예능을 안 하면 그것도 아까운 일이다. <마녀사냥>은 그 어떤 인물보다 발라드 가수가 연애와 성에 대해 말할 수 있었기에 시작부터 달랐던 프로그램이다.

라디오 DJ를 하며 청취자들의 사연을 듣고 이야기 나누던 성시경은 <마녀사냥>을 통해 좀 더 본격적으로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냈다. 속웃보다는 사람의 일행이 중요하고, 몸보다 말이 통하는 여자가 더 좋다는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여자는 없다. 특히 삼수 생활과 대학 시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주 언급하는 그는 그냥 TV에서 보는 연예인이 아닌, 현실에 발 붙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어렵뽀한 환상 속의 남자가 아니라 조리 있는 말로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계속 단서를 던져주는 남자. 한 발 물러선 위치를 지켜야 하는 <비정상회담>에서는 간혹 패널이 두서없이 말할 때 요점을 살려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독 성시경을 좋아하는 기움은 성시경의 장점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잘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은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진짜 좋은 형이다." 많은 여자에게 대화와 토론에 능하거나 여자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노래 잘 부르고 지성까지 갖춘 남자라면? 취향과 상관없이 그 남자와 대화해보고 싶은 것이다. 더 나아가 그와 연애해보면 어떨지도 상상해볼 법하다. 성시경은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여자라면 '성시경 같은 남자가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여자 마음도 다른 남자보다 좀 더 알고, 유머 감각도 꽤 있고, 경제력도 나쁘지 않고, 직업도 꽤 분명해서 '괜찮은 남자'일 것 같다"고 말했다. 거기에 그는 <마녀사냥>을 통해 '서른일곱인데도 정력이 줄지 않아 고만'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가끔 신동엽은 성시경이 '다 크다'고 추켜세운다. 우리가 있고 있던 발라드는 결국 사랑과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다. 성시경은 2010년대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에게 명석과도 같은 예능을 만나 가수로서의 또 다른 기능을 뽐내고 있다.



노래 잘 부르고 지성까지 갖춘 남자라면? 취향과 상관없이 그 남자와 대화해보고 싶은 것이다. 더 나아가 그와 연애해보면 어떨지도 상상해볼 법하다.



<마녀사냥> <별전> 하지웅 명쾌한 말

하지웅이 <별전>과 <마녀사냥>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그는 글을 써서 먹고사는 사람이었다. 그 도래 중 문제적 글로 이목을 끌면서 인기도 있는 사람은 하지웅이 유일했다. 명실공히 방송인이 된 지금도 하지웅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영원히 글 쓰는 사람으로 남길 원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유명해졌다는 것. 글로 흥했고 말로 더 흥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생겨먹은' 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지웅은 글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마녀사냥> 첫 회에서는 난데없이 성육이 없어졌다고 털어놓은 덕분에 '무성' 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러나 그건 이후 화수분처럼 샘솟는 연애 상담에 앞선 맥거핀 같은 타이틀이었을 뿐이다. 연애를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침하다가,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시체가 된다고 일깨워주는 30대. 흥대 인근 모텔의 사정을 꿰고 있는 정보력과 내공으로 '연애 좀 해본 남자'임을 증명하면서, 아픈 개인사로 인한 나름의 통찰을 드러내며 '인생 좀 아는 사람'의 인상도 풍긴다. 이쯤 되면 스스로를 성육 없는 사마천이라고 명명한 것은 다 해본 자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보인다. 간혹 비뚤어진 시각으로, 이를테면 세상은 원래 별로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펼쳐갈지 궁금하다. 하지웅의 말은 일단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싶다.

하지웅이 하는 그 모든 말은 거침이 없다. 지금은 하차한 <별전>에서 하지웅은 패널 중에서도 가장 돌직구를 날렸다. 연애든 대중문화든, 돌려 말하는 법이 없는 하지웅식 화법. 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불확실한 것 투성이인 세상에서 명쾌한 어조로 말하기 때문 아닐까? 많은 여성이 하지웅을 '섹시하다'고 하는 건 그가 나름의 통찰과 논리를 통한 명쾌함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관심 있는 이성에게 접근하고 싶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은 주관 뚜렷한 누군가의 한마디를 원하곤 한다. 자기 것을 견고하게 지닌 하지웅은 뻗은 방송 패널들 사이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등장이었다. 그래서 인기를 얻은 그가 <학교 다녀왔습니다>에 출연했을 때, 10대 학생들도 '솔루션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이 형에게 연애 상담을 청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학교 생활을 마친 하지웅은 방송 마지막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짝꿍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 짝꿍이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추억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며 입술이 떨릴 정도로 우는 사람. 연예인이 아닌데도 보이는 모습 너머에 어떤 이야기가 더 있을지 궁금해지는 인물이 아닐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강남과 남주혁 학교에 간 명랑한 20대들

연예인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 등교부터 하교까지, 연예인이기에 얻는 특혜 없이 고등학생들과 섞여 수업을 받고 학교 생활을 겪는다. 스물아홉 살 강남은 10대 시절 학교를 다섯 번이나 잘린 경험이 있다. 스물두 살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남주혁은 마침 학교라는 울타리가 그림던 차에 이 예능을 시작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의 두 축, 그룹 M.I.B의 강남과 모델 겸 연기자 남주혁은 '가나면주'라고 불린다. 강남이 완벽하지 못한 한국어로 남주혁을 '가나면주'라고 부르고, 두 사람이 짝 지어 케미스트리를 발산하면서 강남과 정체 모를 이름 가나면주를 함께 붙여진 명칭이다. 학교는 제작진이 상황을 설정하고 의도대로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강남과 남주혁은 축제에 초대받은 연예인처럼 타자의 시선으로 학교를 잠시 감상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쪽지 시험이 있을 때는 똑같이 시험을 보고, 체육 시간이 끝난 후에는 매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며,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는 학생들과 캠퍼스를 쫓아 먹다 선생님에게 혼날한다. 소소해서 잊었던 학생 시절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통 학생들 틈에 섞인 강남과 남주혁을 통해 되살아난다.

예측 불허의 자유로운 영혼인 강남은 학교에 한 명씩 있을 법한 튀는 학생을 떠오르게 한다. 갑자기 비가 내리자 지나가던 여학생들에게 "너네 여자인데 우산 없냐?"고 황당한 멘트를 날리고, 학생들끼리 조를 꾸려 퀴즈 대회를 준비할 때는 드러누워 잔다. 하지만 명에 반장으로 뽑혔을 때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카메라와 방송을 자각하지 못하는 솔직한 때문에 낯뜨거운 매력으로 그대로 드러낸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편에서 함께 출연한 슈퍼키드의 멤버 징고는 강남이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상대라고 했다. 강남은 빠진 일이 있는 친구와 얼마간 눈도 잘 안 마주치는 10대의 한 면을 예능에서 고스란히 노출한다. 그래도 "한국에서 만나본 외국인들 중에 듣기와 말하기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같다. <비정상회담>의 타쿠야와도 친하지만 사색에서 욕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훨씬 잘한다"고 말하는 해맑은 자신감은 어느새 그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학교라는 공간에 어디로 뭘지 모르는 강남 같은 학생이 있다면, 키 크고 잘 생겨서 인기 많은 남주혁 같은 학생도 있는 법이다. 그는 188cm의 키로 학창 시절 농구를 하다 부상을 입은 후 모델로 진로를 바꿨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에서 교실을 나설 때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이미 수년 전 진짜 학교에 다닐 때 겪어봤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남주혁은 학생들과 섞여 있을 때 가장 위화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퀴즈 대회를 준비할 때 낮잠을 자던 강남과 달리 남주혁은 의욕이 넘쳤다. "저 수능에서 한국사 2등급이었어요. 한국사 공부 잘했더니가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역사소으로 자신 있게 외우는 연예인은 분명 드물 것이다(막상 퀴즈 대회에서는 한 문제도 맞지 못했다). 주로 남학생들의 환호를 받는 강남과 여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남주혁은 유치하게 티격태격하며 남자 아이들이 응당 그럴 법한 일상을 드러냈다. 그런 모습에서 학교라는 보통 공간에 들어간 연예인의 인간다움이 자연스럽게 엿보인다. 폭력과 입시 문제로 골질 조영되는 뉴스 속의 자극적인 학교는 <학교 다녀왔습니다>의 관찰 카메라를 통해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 기억 속의 학교로 다시 나타난다. 강남은 인천이고 편에서 말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다 잘렸는데, 이런 학교를 다녔다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남과 남주혁은 다시 한 번 학교에 다녀왔고, 시청자 역시 요즘의 학교를 간접 경험해본다.



연애든 대중문화든, 돌려 말하는 법이 없는 하지웅 식 화법. 그가 인기를 끌고 많은 여성이 하지웅을 '섹시하다'고 하는 건 그가 나름의 통찰과 논리를 통한 명쾌함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JTBC를 '빛낼' 다음 스타는?

장서희
치밀한 계획 아래 복수의 여신으로 거듭났던 <아내의 유혹>의 '온아리영'은 드라마 세계에 길이 남을 캐릭터였다. 하지만 뛰어난 연기 뒤에 그녀의 진짜 얼굴은 늘 가려져 있었다. <남과 함께 시즌 2-최고의 사랑>의 장서희는 비주얼 커플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여자 장서희의 숨은 매력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허당! 만두 하나 제대로 못 굽지만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 여자.



주로 남학생들의 환호를 받는 강남과 여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남주혁은 유치하게 티격태격하며 남자 아이들이 응당 그럴 법한 일상을 드러냈다. 그런 모습에서 학교라는 보통 공간에 들어간 연예인의 인간다움이 자연스럽게 엿보인다.

윤건
비 오는 입구정을 노래하던 윤건의 촉촉한 목소리는 잊어라. 브라운 아이즈의 보컬로, 2000년대 여자들이 원한 바로 그 목소리였던 윤건이 가상 결혼 프로젝트에 투입된 건 의외였다. 하지만 점점 신의 한 수라는 게 드러나는 중이다. 마트에서 장 보기 놀이동산 데이트 등 '최고(령)'의 연인들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 중.



서장훈
한 주간의 연애 이슈를 풀어놓는 '예능심판단'은 <별전>의 또 다른 묘미다. 하지웅 대신 투입된 서장훈은 <우한도전>의 식스맨으로 거론될 정도로 떠오르는 예능의 황태자다. 특히 그는 서로 얽히고설켜 알아도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연애 이슈를 자유롭게 말하는 자다. 왜냐하면 그는 연예인이기 전에 체육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위치를 마음껏 살려 덩크슛 같은 촌철살인을 마구 날려주길.



<걱정 말아요, 그대>

8화 주제 '밥' 참관 후기

김제동의 특투유

김제동의 특투유, 그 현장에는 뜨거운 공감기가 있었다. 저마다 외로운 시대, 김제동과 시대의 멘토들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 그 현장의 생생한 기록.

글 윤승현(경희대 지리학과 1학년 휴학 중인 고민 많은 기자 지망생)



공감의 필승법, 듣기

사실 청년 토크 콘서트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다. 고민이 정말 여기서 해결될 수 있을까? 청년 토크 콘서트에 대해 난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방송 참관을 앞두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름처럼 나의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또 그 방법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으니까.

특투유 8화는 서경대학교 문예관에서 진행됐다. 입장하기 전 동행한 일행과 김제동 판넬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았다. 그리고 메르스 예방을 위한 간단한 체온 검사를 받은 뒤 스케치북을 들고 강연장으로 들어갔다. 관계자들이 나눠준 밀크티를 마시던 중, 김제동이 입장했다. 생각보다 멀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다. 김제동은 바로 방송의 본주체에 들어가지 않고, 스케치북을 통해 각자의 고민들을 들여다보았다. 스케치북이 인스타그램에서 그 유명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강연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답답한 게 많은지,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듣기'의 마법

각자의 걱정은 비슷하면서도 다양했다.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서울로 상경한 29살 청년부터 왕도마뱀을 집에서 키우고 싶은 고등학생, 말레이시아 유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걱정이 있었다. 사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기에 대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으나, 김제동의 능력은 탁월했다. 그는 대화의 뿌리가 되는 '듣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며 공감해주었다. 선부터 충고를 하는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에 나도 완전히 빠져들었다. 위로에도 책임감이 필요한 법이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흐르고 패널들이 등장했다.

이 방송의 패널들은 참 매력적인 어른들이다. 또 아직 핫하진 않지만, 핫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자신을 최고 강사라 칭하는 최진기 강사는 수험생에게 사회탐구를, 청년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며 사회 현상을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분석한다. 정재승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을 쉽게 또 잘 쓰는 과학자 중 한 명이며, <인간실격>의 주인공에서 이름을 딴 요조는 흥대 인디 신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청춘들과 가장 가까워서 문화를 공유한다. 주관적인 공감과 더불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MC와 패널들의 조합이다. 본격적으로 '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냉장고를 부탁해>의 최현석 셰프가 등장했다. 그렇다. 이 방송의 게스트는 빈틈이 없다.

미식가인 남편이 걱정이라는 아내의 말에 사람들은 함께 탄식을 한다. 패널들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함께 공감해주었다. 내가 콘서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음악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느낌 때문인데, 순간 같은 종류의 느낌을 받았다. 남편의 실상은 결혼 후의 밥에 대한 로망이 있는 평범한 남자였고 '밥과 가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그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부부는 조금 더 낭만적인 부부가 됐다.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고민들이 있다. 애인에게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여자친구도 등장했다. 심지어 밥에 대한 고민은 패널도 가지고 있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고민에 요조는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한다며 말해준다. 인간적이지 못한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진 소와 돼지를 보고 육식을 끊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단다. 꿈속에도 고기가 나와 너무 힘들다는 말엔 도리어 방청객들이 공감을 한다. 사실 이 걱정 또한 답은 없다. 그저 내가 이런 고민이 있으니 말해보고, 상대는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거면 된 거다. 고민의 종류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도 오간다. 이 사람의 고민은 엉뚱해 보이는데, 또 누구의 고민은 눈물이 맺힌다. 그런 중에 김제동의 완급 조절이 빛난다. 방금 전까지의 울적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꾼다.

패널들의 포지션도 잘 어울린다. 최진기 강사는 사회 전반적인 시선, 정재승 교수는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요조는 감성적이고 솔직함일까. 그렇기에 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풀어나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막방 열풍을 단순한 푸드포르노가 아닌 음식 콘텐츠의 힘이 커짐과 '혼밥'으로 불리는 혼자 먹는 밥과 우울함에서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강연 곳곳에 들어간 패



▽
막방 열풍을 단순한 푸드포르노가 아닌 음식 콘텐츠의 힘이 커짐과 '혼밥'으로 불리는 혼자 먹는 밥과 우울함에서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강연 곳곳에 들어간 패널들의 생각이 흥미롭다.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도 아끼지 않는다.



널들의 생각이 흥미롭다.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비판의 화살을 당신과 남이 아닌 우리에게 돌린다. 삼십대의 여성이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라 묻는다. 이에 패널들은 남 젓가락질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란다. 다름과 틀림의 기본적인 구분을 못함에 열을 올린다.

녹화의 마지막으로 패널에게 밥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최현석 셰프에게 식사는 당연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식사란 관계 맺음이며 소통과 공유의 시간이다. 정재승 교수에게 살면서 먹는 팔만 끼의 식사는 인생을 바꿔주고, 온전히 삶이 되는 것이다. 식습관이 자신을 말해주며, 밥공기에 인생이 들어간다. 김제동은 이야기 하나를 해준다. 어릴 적 황도 복숭아 캔이 항상

먹고 싶었던 그에게 어린아날 어머니가 주신 황도 복숭아와 그 국물은 그냥 맛이 아니었다. 그 어린 아이가 먹고 싶은 걸 기억하는, 그런 사랑이 담긴 것이다. 이렇듯 밥이 그저 밥이 아니다. 누구와 언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요조의 노래와 함께 4시간의 녹화는 끝이 났다. 곡은 밥이라는 주제를 고려한 선곡으로 윤종신의 팔빙수와 박학기의 비타민, 어쿠스틱 기타 한 대와 셰이커로 편곡을 했는데, 요조 특유의 속삭이는 듯한 보컬톤이 돋보이는 조합이었다. 강연의 주제와 어울리는 담백한 마무리였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덕에 4시간의 녹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김제동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인간의 사상은 빛깔로 색되고, 몸은 음식으로 색든다고. 건강한 요리와 함께 올바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외로움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을 마주 보고 밥 한 끼를 하는 것이지 모른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고민이 별게 아니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저 당신이 걱정을 덜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해해서 말해준다. 내 걱정을 눈 마주치며 들어주고, 이 걱정을 문제라 여기지 않는다. 당연한 말을 안 해주니까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줄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다르게 풀렸다. 고민을 해결하기보다 고민을 나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민을 좀 더 명확히 보게 되지 않을까. 멘토링을 한다 해도 달라질 것 없고, 힐링이라 해도 그 잠깐의 도피처다. 어쩌면 공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멘토링과 힐링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이 더 고맙게 느껴진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허무함이 아닌, 사람 사는 맛을 보여주는 감동을 주는 토크 콘서트라면 언제든지 갈 마음이 됐다.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김제동의 특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의 탄로가 기대된다.



🇨🇳 🇧🇪 🇯🇵 🇮🇹

내 친구의 집에 놀러 왔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식주를 체험하며 여행에 대한 새로운 감동과 설렘으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글로벌 친구 집순격 프로젝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며 멤버들이 겪는 좌충우돌 신나는 여행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한다. 마치 일기장을 훑어보는 듯 방송과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길!

PHOTOGRAPHER ZAMZAM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의 첫 출발지는 중국 특히 알베르토가 장위안보다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해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 운남성의 리장은 방송 이후 관광지로 인기가 치솟고 있을 정도

HOUSE 01
CHINA
Beijing / 9,596,960 km²
/ 1,355,652,576 / C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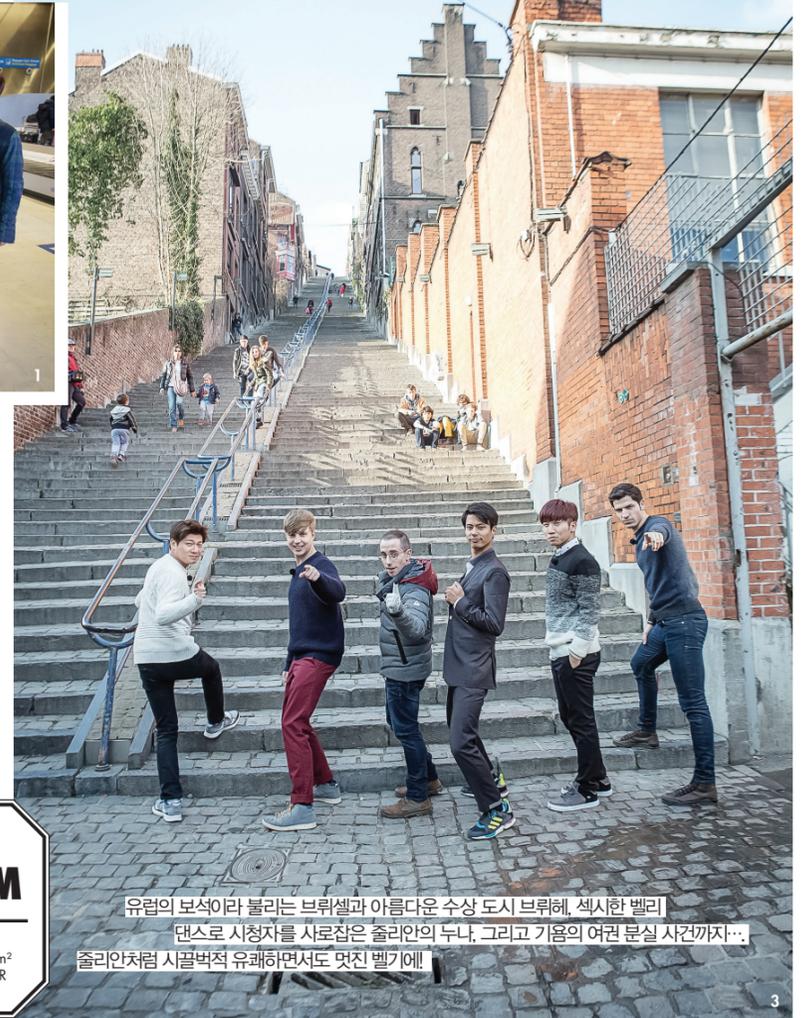


- 1 식당 직원까지 사로잡은 이놈의 매력
- 2 파룬궁으로 시작하는 중국의 아침
- 3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지였던 리장을 배경으로 한 컷!
- 4 짝을 지어 자유 여행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다
- 5 기움이라면 이 정도 주량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1 자기 집에 간다고 신난 줄리안
- 2 벨기에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바로 '와아아아아'!
- 3 리에주 374계단 오르기 선수권 대회가 시작됩니다
- 4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 유럽에 오면 유러피언으로 변하는 알베르토
- 5 맥주 강국의 클래스를 경험해볼까요?
- 6 광장에만 들어서면 셀카봉부터~

HOUSE 02
BELGIUM
Bruxelles / 30,528 km²
/ 10,449,361 / EUR



유럽의 보석이라 불리는 브뤼셀과 아름다운 수상 도시 브뤼헤, 색다른 벨리댄스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줄리안의 두나, 그리고 기움의 여권 분실 사건까지... 줄리안처럼 시끌벅적 유쾌하면서도 멋진 벨기에!





2



HOUSE 03
NEPAL

Kathmandu / 147,181km²
/ 29,519,114 / NPR



전통과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된 아름다운 나라, 네팔.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일상을, 특히 네팔 대지진 이후 수잔과 마크는 네팔을 다시 찾아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변한 네팔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 1 네팔 사람 다 됐어요~
- 2 우리가 개를 구경하는 건지 개가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 3 꽃보다 아름다운 정위안과 마크
- 4 헤어지가 아쉬워서~
- 5 그가 돌아왔다! 내 친구 제임스 후퍼



3



- 1 "젤리토 한입 드실래요?"
- 2 여권 케이스까지 이탈리아 국기로
- 3 이탈리아에서 이색은천관광
- 4 베네치아의 가면을 쓴 그들, 누가 누구일까요?
- 5 물의 도시 베네치아 입성



3



사랑꾼 알베르토와 떠난 이탈리아 '아 벨라~'를 외치며 떠난 그들은 이탈리아 중부지방인 토스카나부터 알베르토의 고향 베네치아까지 신나는 여행을 만끽했다. 듣기만 해도 로맨틱해지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먹고 입고 즐기는 최충우들 여행기가 펼쳐진다.

HOUSE 04
ITALY

Rome / 301,340km²
/ 61,680,122 / 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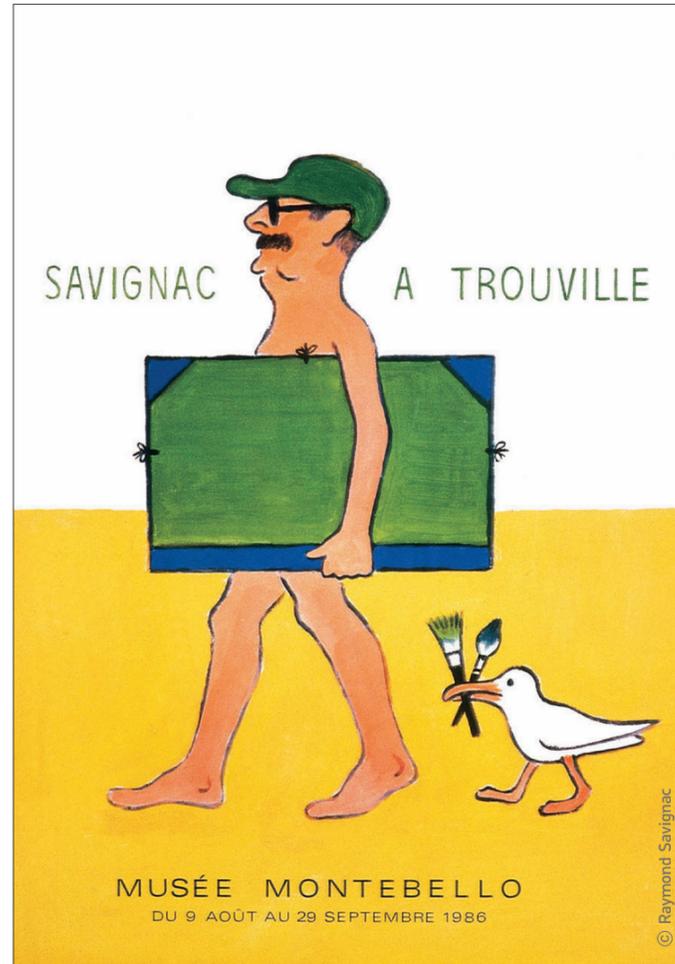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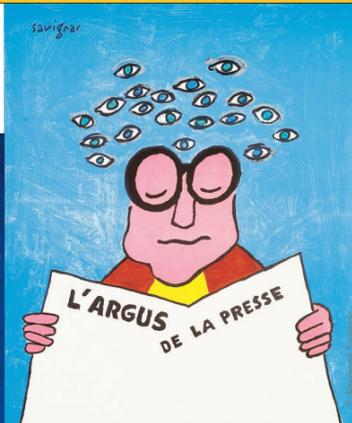


이번 주말 뭐하세요?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짧은 미소를 전한다. 20세기를 장식한 포스터 아티스트 레이먼 사비냐크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글 윤서연



그는 모든 작업에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았다.



◀ 레이먼 사비냐크를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미크 몽사봉.

레이먼 사비냐크, 포스터로 말 걸기

상업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포스터도 예술적일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화가 로트레이 선과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몰랭루주 개관 포스터는 포스터도 예술의 한 자락임을 선포했다. 아르누보 작가인 알폰소 무하 역시 많은 광고 포스터를 남겼다. 그들의 뒤를 이어 레이먼 사비냐크는 포스터 작업만으로 20세기 미술사에 남았다.

1907년 파리에서 태어나 2002년 세상을 떠난 레이먼 사비냐크는, 현대 미술 사조의 흐름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라고도 같았다. 레이먼 사비냐크는 1907년 프랑스 파리의 잔아셰트(Jeanne-Hachette) 거리에서 태어났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자전거 선수를 꿈꾸었지만, 디자이너가 된다. 광고를 만드는 로르타크(Lortac)에서 꼭두각시를 이용한 최초의 애니메이션 광고를 만들었다.

1929년 사비냐크는 군복무를 마치고 광고회사 미라마(Miramar)에 입사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포스터 작업을 시작한다. 당시의 유명 포스터 작가인 카산드르(Cassandre)의 문하생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여러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관료주의를 견디지 못했다. 군대 생활보다 더 끔찍했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그는 이 시절부터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콧수염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사비냐크가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1949년 광고에 처음으로 개그를 도입한 혁신적인 작품 '밀크 몽사봉(Monsavon au lait)' 포스터다. 그는 이 작품으로 스타가 되고, 세계에서 쇄도하는 작품 의뢰 속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곧 그는 후배들이 모방하는 작가가 되고, 유럽과 미국은 물론 먼 일본에서도 작품을 의뢰받는다. 찰리 채플린을 좋아했던 그는 채플린식의 유머를 포스터에 담고자 했다. 자신만의 '비주얼 스캔들(Visual Scandal)'이라는 기법을 만들어냈는데, 이질적 요소들을 기발하게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현대 광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상 밖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작품은 사비냐크를 현대 미술 작가로, 광고계의 걸출한 아티스트로 남게 했다. 그의 낙관적인 세계, 그럼에도 인생은 유쾌하고 살 만하다는 한 폭의 포스터는 오늘도 현대인에게 짧은 미소를 건넨다.

'KT&G 상상마당 20세기 가장 시리즈, 두 번째-20세기 가장 위대한 포스터 아티스트 레이먼 사비냐크' 국내 최초 기획전에서 레이먼 사비냐크의 원화작품 100여 점이 공개된다. 프랑스 트루빌 몬테벨로 시립미술관과 파리시 푸에니 도서관에 전시된 밀크 몽사봉(1949), 마기 포토프(1959) 등 레이먼 사비냐크의 대표작을 국내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8월 30일까지 서울 KT&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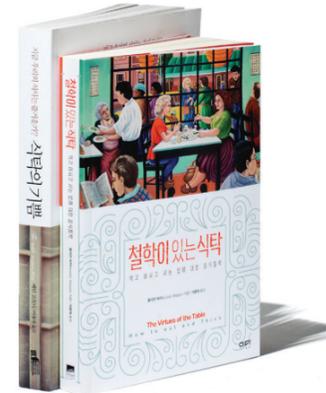


<한국이 싫어서>

어쩌면 어제 저녁 회식에서, 오늘 출근길에서, 카톡에 도착한 메르스 괴담을 보면서 '한국이 싫다'고 중얼거렸는지 모른다. 젊은 청춘이 이 땅을 떠나 호주로 이민 가는 과정을 담은 이 책은 그래서 지극히 판타지적이지만 절대적인 리얼리즘을 보여준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 나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주인공의 말이다. 유수의 문학상을 휩쓴 장강명 작가의 신작이다. 민음사

<철학이 있는 식탁>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오늘 맛집에 가서 SNS에 인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음식은 문화이자 철학이며 때로 정치가 되기도 한다. 뉴욕의 칼럼니스트 애덤 고프닉이 쓴 <식탁의 기쁨>과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 줄리언 바지니가 쓴 <철학이 있는 식탁>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을 나누는 장소인 식탁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이야기한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기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추천한다.



<낡은 것들의 힘>

아무리 낡아도 버릴 수 없는 옷이 있는가? 더 이상 예쁘지 않고, 홀리스도 정중히 사양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소중한 옷. 이 책에는 작가, 뮤지션, 화가, 디자이너 등 크리에이터 67명의 낡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자 자신의 추억이 새겨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등 낡은 의류를 소개하며 그 속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한스미더

전시

은밀한 생

비비안 마이어의 전시 <내나의 비밀>

아마추어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의 비밀스러운 삶과 그녀의 작품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2015년의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창작자라면, 미디어 종사자거나 예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한 인간의 삶에 호기심을 가진 대중이라면 이 영화를 본 뒤 각자의 역막함을 달랠 것이다. 영화 속에 펼쳐졌던 그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 <내나의 비밀>이 7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열린다. 그녀의 작품 114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같은 기간 1960년대 미국의 일상을 담은 게리 위노그랜드의 <여성은 아름다다> 전도 열린다. 묘하게 연결되는 전시니 함께 둘러보면 좋겠다.

사후 작업이 공개된 아마추어 작가 비비안 마이어.



JTBC 예능이 대세!

당신은 이미 보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기획, 인물로 가득한 JTBC의 새 프로그램, 우리는 곧 이 프로그램을 실재 없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복잡해,
몸은 무겁기만 하고...”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매주 토요일 밤 9시 50분
“우리 집에 올래? 너네 집에 갈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말 그대로 내 친구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해외 유희로케이션 리얼 버라이어티다. 멤버들은 ‘글로벌 친구집 습격 프로젝트’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계 각국 친구들의 고향집을 찾아간다. 내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100% 리얼, 감동, 재미 그리고 웃음을 선사한다. 벨기에 줄리앙의 집, 중국 장위안의 집, 그리고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물한 네팔 수잔의 집을 돌아보며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한 번쯤은 했을 법한 말 “우리 집에 올래?” 또는 “너네 집에 갈래?”를 떠올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은동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첫사랑, 심.장.폭.행!”

<사랑하는 은동아>는 20년간 한 여자만을 사랑한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로, 톱스타 지은호의 자독하고 순수한 사랑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녹여낸 서정멜로드라마다. 주인공은 첫사랑 은동을 찾기 위해 배우 지은호가 되고, 김사랑은 주인공의 첫사랑 은동이자 톱스타가 된 지은호의 자서전 대필 작가 서정은 역할을 맡았다. 아름다웠던 10대 시절, 찬란하게 빛나는 20대 시절의 은동과 현수를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모두의 심장과 취향을 저격한다.



<김제동의 특투유> - 매주 일요일 밤 9시 45분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고민, 걱정 말아요 그대”

<김제동의 특투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말꾼 김제동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서로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눈다. 오랜 시간 끝에 단독 MC로 마이크를 잡은 김제동은 지금까지 정말 원했고, 꼭 도전해보고 싶은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을 통한 치유를 지향한다.

“요즘 트렌드는
무엇일까?”
색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당신에게



<비정상회담> - 매주 월요일 밤 11시
“비정상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

<비정상회담>은 2014년 가장 뜨거운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첫 방송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방송 직후부터 출연진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외국인 청년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인이 되었고 매회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공감형 주제를 가지고 의미 있는 토론을 펼치는 <비정상회담>은 웰메이드 예능이라는 호평 속에서 꾸준히 그들만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고, <냉장고를 부탁해>와 함께 직장인들의 월요병을 치유하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 - 매주 월요일 밤 9시 40분
“냉!부해! 내 월요병을 부탁해!”

‘셰프티아니 전성시대를 연 주역이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다. ‘떡방’에 이어 ‘국방’이 대세가 된 지금, 그중에서도 <냉장고를 부탁해>는 월요병을 날려주는 최고의 ‘꿀잼 예능’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실제 연예인의 냉장고를 집에서 스튜디오로 옮겨와 그 안의 재료를 공개하고, 그 재료만으로 15분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 대결을 펼친다. 개성도 맛도 뚜렷한 셰프들과 메인 MC 김성주 정형돈의 찰떡궁합, 그리고 15분이라는 박진감 넘치는 호흡으로 신개념 국방의 지평을 열었다.



<썰전> - 매주 목요일 밤 11시
“지나치게 솔직하니까 썰전!”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궁금한가?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개념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은 이 사회를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이 되고 있다. 한 주간의 정치·시사 이슈를 논하는 시간과 연예계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 심판자’ 코너를 구별해 교양과 예능의 적절한 조화로 참신하다는 평을 이끌어낸 ‘썰전’은 리뷰 토크쇼라는 새 장을 여는 데 기여했다. 일주일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싶다면,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대화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매주 목요일 <썰전>을 사수하라.

<마녀사냥> - 매주 금요일 밤 11시
“이제 우리들의 연애는 그린라이트로 통한다”

<마녀사냥>은 연애라는 개인적인 주제를 국민 모두의 주제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연애 심리 토크쇼로 자리매김했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사냥>은 신동엽, 성시경, 허지웅, 유세윤 등 유쾌한 네 남자의 조합으로 매주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편된 2부에서는 사랑으로 힘들어 하는 일반인을 직접 초대해 펼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주목해야 한다. 씬남쌤녀와 주고받은 실제 메신저 내용을 놓고 MC와 게스트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금요일엔 ‘19금’ 간판을 내걸고 화끈하게 우리의 불금을 책임지는 <마녀사냥>을 놓치지 말자.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JTBC 피플의 사소하고 은밀한 생각 엿보기.



4년 차 국제부 기자
이현

출근하기 싫은 날은?

김군이 IS에 가담한 날, 메르스 환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날, 미국에서 폭동 일어난 날... 그런 날...

내가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2층 화장실.

요즘 가장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제대한 송중기.

최근 저지른 실수는?

변기에 빠졌던 전화기를 대충 말리고 쓰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전화기가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물에 빠진 전화기는 꼭 AS를 받아야 한다.

이번 주말 계획은?

짜왕을 먹는 것.

디자인센터장
남공유

출근하기 싫은 날은?

없다(정말일까?).

내가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회사 건물 뒤에 있는 상암근린공원

JTBC에서 일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잠깐 혼자 있고 싶은데요?

요즘 가장 예뻐 보이는 사람은?

지정하기 어렵다.

가장 최근 본 영화와 소감은?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그레이트 뷰티(The Great Beauty)〉. 너무 다른 장르의 영화지만 디테일한 설정과 카메라 앵글의 움직임이 신선했다.



SNS담당 (홍보마케팅팀)
조주환 차장

내가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엘리베이터 안. 회사 엘리베이터가 워낙 느려서 일단 타면 반갑다.

나의 피로회복제는?

골프라고 하고 싶은데 못 쳐서 더 피로해짐.

열대야에 대처하는 법

빨리 자면 됨.

요즘 가장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팀장님. 갈수록 잘생겨지는 것 같음(아부 아님).

최근 저지른 실수는?

회식 후 기억이 나지 않음.

아나운서
송민교

내가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16층 더빙실과 더빙부스.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말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라디오 음악 방송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회사에는 라디오가 없다! 더빙실에서 그 아쉬움을 달랜다.

나의 피로회복제는?

퇴근길에 운전하며 고성방가,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이기는 경기!'

JTBC에서 일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노희경 작가님, 신승훈 님, 그리고 유희열 님을 꼭 뵙고 싶었다. 그중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 제작발표회 사회를 보면서 노희경 작가님을 보였고, 〈히든싱어〉 녹화하러 오신 신승훈 님도 만났다. 이제 한 분, 유희열 님만 남았다.

최근 저지른 실수는?

손연재 선수가 출전한 리듬체조 타슈켄트 월드컵을 중계할 때, 나라 이름 중에 '우즈베키스탄'가 그렇게 꼬였다. 우즈베크, 우즈베, 우즈케, 우즈키스탄...

이번 주말 계획은?

내 꿈 중 하나가 테니스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를 직접 가서 보는 것이다. 그 꿈이 중계가 되어 돌아왔다.





Who's Bag?
**나의
 가방을
 소개합니다**



가방의 주인은? JT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소속된 김관 기자는 작년 4월 세월호 사건 직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매일 현장 상황을 전해 주목받은 바 있다. 현재 뉴스를 '말차카메라'에서 각종 세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 1.3 노트북과 휴대폰은 기자업무 특성상 잠시도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동일 기종으로 대체하여 촬영.
- 2. 녹취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이어폰
- 4. 명함을 워낙 많이 뿌리고 다녀서 때로 박스째로 들고 다닌다.
- 5. 최근에 읽은 책 <판사유감>
- 6. 핫팩은 바깥 생활이 많은 사회부 기자의 겨울 생존 필수품이다. 어쩌면 여름에도.
- 7. 세월호 1주년에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때의 승선권
- 8. 수첩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취재 기록이 가득하다.
- 9. 로션, 가글, 아스피린, 칫솔과 치약을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는,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

